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학석사학위논문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연구

- 1985년 이후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Álvaro Siza's strategy of realizing architectural space inducing spatial experiences

- focusing on the public buildings since 1985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원 희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연구

- 1985년 이후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Álvaro Siza's strategy of realizing architectural space inducing spatial experiences

- focusing on the public buildings since 1985 -

지도교수 최 두 남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원 희

이원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연구

- 1985년 이후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두 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원 희

본 연구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모더니즘의 보편성을 결합하는 현대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건축에 대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시자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과 문화의 수용, 삶의 반영, 시적 형태, 감흥을 주는 건축 등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휘들로 시자의 건축 디자인 방법에 대해 의미화를 하거나 형태의 유형화, 특정 표현 요소에 치중한 분석 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자의 건축에 대해 체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공간적 체험을 구현하는 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시자는 자신의 건축 개념에 대해 명확한 언어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시자의 건축에서 체험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평가들과 시자의 언술을 통해 도출한,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 체험의 개념은 첫째,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둘째,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셋째, 공간의 연속적 관계의 체험이다.

이를 통해 시자의 건축을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으로 재정의 하고 이러한 공간의 체험을 유발하기 위한 구현방식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움직임을 통해 체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는 매스의 분절, 모호한 입구, 다양한 층위의 벽이 있다.

둘째, 사용자의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체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는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해 나타나며 비워진 공간과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

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연속적 관계의 체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는 공간 간 관계의 조정으로서, 형태와 내부 공간의 반전,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도시 조직과의 조화 또는 반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한 가지의 의미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현방식들과 상호작용하여 사람들이 공간을 복합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시자의 건축이 대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을 갖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체험을 유발하는 공간 구현방식을 통한 시자의 건축 구성방식은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다양한 시퀀스를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부분적인 시퀀스의 경험과 그 합을 통해 전체적인 체험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사람마다 다른 체험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그것을 매개로 기억을 재구성 하도록 한다. 이는 같은 공간을 다른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통요소를 공간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도 사람마다 경험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갖게 한다.

셋째, 빛과 창을 통한 도시와의 소통과 공간의 상호관입을 통한 자연과의 연속적 관계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공간이 주변 환경과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시자의 건축은 단순히 현상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적 체험 이상으로 도시와 자연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람들의 행위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사회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틀의 시작점인 시자의 공간적 체험의 개념이 시자와 비평가들의 언술을 통해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과제로서 이러한 공간의 체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틀이 설정되길 기대해본다. 또한 시자 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화와 전통의 반영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되는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주요어 : 알바로 시자, 체험, 움직임, 관계, 시퀀스
학 번 : 2010-23172

목 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4

1.2.1. 연구의 방법 ····· 4

1.2.2. 연구의 대상 ····· 6

제 2 장 예비 고찰: 알바로 시자 건축의 맥락

2.1. 건축적 입장의 형성 배경 ····· 10

2.2. 알바로 시자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 ····· 13

2.2.1.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 14

2.2.2. 현실의 변형(Transformation) ····· 15

2.2.3.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 ····· 18

2.2.4.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 ····· 19

2.2.5. 공간의 체험 ····· 20

2.3. 알바로 시자 건축공간의 체험에 관한 심층연구 필요 ····· 22

2.3.1. 기존 연구의 한계점 보완 ····· 22

2.3.2. 연구의 난점 및 방법 제시 ····· 26

제 3 장 체험에 관한 알바로 시자의 건축 언어

3.1. 알바로 시자의 언술과 비평을 통한 분석틀 설정 ····· 29

3.1.1. 알바로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비평 ····· 29

3.1.2. 알바로 시자의 체험에 관한 언술 ····· 31

3.1.3. 분석틀 설정 ····· 34

3.2. 알바로 시자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 ····· 36

3.2.1.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 36

3.2.2. 사용자에 의한 공간 해석 ····· 39

3.2.3.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 40

3.3. 소결 :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 43

제 4 장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4.1. 움직임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 45

4.1.1. 매스의 분절 ····· 45

4.1.2. 모호한 입구 ····· 52

4.1.3. 다양한 층위의 벽 ····· 54

4.2.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 58

4.2.1. 비워진 공간 ····· 58

4.2.2.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 61

4.3.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 64

4.3.1. 형태와 내부 공간의 반전 ····· 64

4.3.2.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 66

4.3.3. 도시 조직과의 조화 또는 반전 ····· 68

4.4. 소결: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특징 ····· 70

제 5 장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구현공간 구성방식의 특징

5.1. 시퀀스의 조정을 통한 공간의 체험 유발 ····· 73

5.1.1. 다양한 시퀀스의 가능성 ····· 73

5.1.2.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 ····· 75

5.2.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체험의 통합 ····· 77

5.2.1. 다양한 시점에서 같은 공간의 반복적 체험 ····· 77

5.2.2. 공통요소를 통한 반복적 인식 ····· 79

5.3. 연속적 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장소의 구현 ····· 80

5.3.1. 빛과 창을 통한 도시와의 연속적 관계 ····· 80

5.3.2. 공간의 관입을 통한 자연과의 연속적 관계 ····· 81

5.4. 소결: 사회적 장소로의 변화의 여지 ····· 84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1] 연구흐름도 ····· 5
[표 1-2] 연구의 대상 ····· 8
[표 2-1] 기존 연구의 내용 및 한계 ····· 22-24
[표 2-2] 연구의 방향 설정 과정 ····· 25
[표 3-1]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비평가들의 언술 ····· 29-31
[표 3-2] 시자의 체험에 언술 ····· 31-33
[표 3-3]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분석틀 도출과정 ····· 35
[표 3-4]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 방식 분석틀 ····· 43
[표 4-1] 세투발 교육대학의 개요 ····· 45
[표 4-2] 세투발 교육대학의 시퀀스 상에서 공간감의 변화 ····· 47
[표 4-3]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의 개요 ····· 47
[표 4-4] 카나베제스 교회의 개요 ····· 49
[표 4-5] 세랄베스 현대미술관의 개요 ····· 50-51
[표 4-6] 갈리시안 미술관의 개요 ····· 54
[표 4-7]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개요 ····· 58
[표 4-8]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의 개요 ····· 60
[표 4-9] 레비그레스 전시홀의 개요 ····· 62
[표 4-10] 미메시스 뮤지엄의 개요 ····· 69

그 림 목 차

[그림 1-1] 보아노바 찻집(좌), 레카 다 팔메이라 수영장(우) ····· 6
[그림 1-2] Quinta da malagueira 집합주택(좌), Bouça 집합주택(우) ····· 6
[그림 1-3] Schlesisches Tor 재개발 프로젝트(좌),
Schilderswijk (중), Doedijnstraat 재개발 프로젝트(우) ····· 7
[그림 2-1] 타보라, 테니스 파빌리온 ····· 12
[그림 2-2] 타보라, Vila da Feira market ····· 12
[그림 2-3] 스티븐 홀, 키아스마 현대미술관 (좌)
안도 다다오, 빛의 교회와 스미요시 주택(우) ····· 27
[그림 3-1]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의 연속적 경험 ····· 34
[그림 3-2] 세투발 교육대학 스케치 ····· 36
[그림 3-3] Siza Sketches: Corner Situation (좌), Design for a studio in the interior of the block (중), ascent to the Carmo ruins (우) ····· 37
[그림 4-1] 세투발 교육대학: 주차장에서 중정까지의 진입과정 ····· 46
[그림 4-2] 세투발 교육대학 스케치- 분절된 매스의 모습 ····· 46
[그림 4-3]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분절된 매스와 다양한 입면 ····· 48
[그림 4-4]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지하1층 도면(좌), 분절된 매스들의
사이 공간(중, 우) ····· 48
[그림 4-5]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다양한 스타일로 디자인된 계단 ····· 49
[그림 4-6]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위치에 따라 보이는 다양한 뷰 ····· 49
[그림 4-7] 카나베제스 교회의 매스의 배치 ····· 50
[그림 4-8] 카나베제스 교회의 지형을 따른 진입과정 ····· 50
[그림 4-9] 경사진 대지에 위치한 세라발스 미술관의 입면 ····· 51
[그림 4-10] 세랄베스 미술관의 매스의 분절(좌)과
분절된 매스들의 사이공간에 의한 중정(중, 우) ····· 52
[그림 4-11] 세투발 교육대학: 입구의 조형성과 숨어있는 입구의 위치 ····· 52
[그림 4-12] 세라벨스 미술관의 입구와 동선(3F) ····· 53
[그림 4-13] 세라벨스 미술관의 A, B, C, D, E 공간 ····· 54
[그림 4-14] 갈리시안 미술관, 공간의 깊이 ····· 55
[그림 4-15] 갈리시안 미술관, A-E 공간의 시퀀스 ····· 55

[그림 4-16]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의 공간의 깊이 ····· 56
[그림 4-17] 세라발스 현대 미술관, 다방향으로 열려있는 문 ····· 56
[그림 4-18] 세라발스 현대 미술관, 다양한 전시 공간 ····· 57
[그림 4-19]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F1 평면, 비워진 공간 ····· 58
[그림 4-20]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비워진 공간 ····· 59
[그림 4-21]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지붕 아래 공간에서 보이는 수평선 ····· 59
[그림 4-22] 세투발 교육대학, 중정의 보존된 나무 ····· 60
[그림 4-23] 세투발 교육대학, 까페테리아의 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좌)과 교실 앞 포티코를 통한 자연과의 상호관입 ····· 60
[그림 4-24]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입구 앞의 마당 ····· 61
[그림 4-25] 세투발 교육대학, (좌측부터) 매스 틈새의 하늘과 빛, 아뜨리움의 천장, 계단실의 창, 체육관의 천창 빛 ····· 62
[그림 4-26] 레비그레스 전시홀의 종단면- 빛 대포 (좌), 횡단면-계단식 지붕 (우) ····· 63
[그림 4-27] 레비그레스 전시홀의 공간감의 반전을 주는 빛 ····· 63
[그림 4-28] 세랄베스 뮤지엄의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 64
[그림 4-29]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입면에서 보면 창의 크기가 매우 작다. 64
[그림 4-30]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밝고 역동적인 내부 공간 ····· 65
[그림 4-31]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내부에서 본 창과 자연의 유입 ····· 65
[그림 4-32]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F2 평면 ····· 65
[그림 4-33]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전시공간의 창 ····· 66
[그림 4-34] 갈리시안 미술관의 주변 도시 ····· 66
[그림 4-35] 산토 도밍고 수도원과의 관계 (좌)와 매스의 구성 (우) ····· 66
[그림 4-36] 갈리시안 미술관: 도시와 조화로운 외부 모습과 반전된 내부 공간 ····· 67
[그림 4-37] 포르토 대학: 도시의 스케일과 자연과의 조화 ····· 67
[그림 4-38] 포르토대학 배치 다이어그램 ····· 68
[그림 4-39] 카나베제스 교회: 견고한 형태의 외관 ····· 68
[그림 4-40] 카나베제스 교회: 밝은 내부 공간 ····· 68
[그림 4-41] 미메시스 뮤지엄: F1 평면 ····· 69
[그림 4-42] 미메시스 뮤지엄: 밝고 역동적인 내부 공간 ····· 69
[그림 5-1] 갈리시안 미술관으로 접근하는 세 가지 시퀀스 ····· 73
[그림 5-2] 시퀀스 A 공원에서 내려오는 길 ····· 73
[그림 5-3] 시퀀스 B Valle-Inclan 거리의 램프 ····· 74
[그림 5-4] 시퀀스 C ····· 74

[그림 5-5] 세랄베스 뮤지엄의 전시공간 시퀀스 ····· 74
[그림 5-6] 갈리시안 미술관의 분절된 공간 ····· 75
[그림 5-7] 포르토 건축대학 내부 공간 ····· 75
[그림 5-8] 브린모어 기숙사(Bryn Mawr Dormitory, 좌)와 리차드 메디컬 센터 (Richard Medical Center, 우) ····· 76
[그림 5-9] 갈리시안 미술관 아뜨리움의 반복적 경험 ····· 77
[그림 5-10] 홀- 입구 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반대방향에서 본 모습 ····· 78
[그림 5-11] 들어갈 때와 내려올 때 보는 홀 ····· 78
[그림 5-12] 세랄베스 미술관의 중정에서 올려다본 테라스 까페와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중정 ····· 78
[그림 5-13] 세랄베스 미술관: 창을 통한 자연과의 반복적 만남 ····· 79
[그림 5-14] 세랄베스 미술관: 천창과 천장 구조물의 반복 ····· 79
[그림 5-15] 카나베제스 교회의 고창을 통한 빛 ····· 80
[그림 5-16] 카나베제스 교회의 수평창 ····· 80
[그림 5-17] 세투발 교육대학의 중정과 포티코 ····· 82
[그림 5-18] 파빌리온과 자연과의 공간적 관입 ····· 82
[그림 5-19] 알리칸테 대학 사제관의 견고한 외부(좌)와 열린 중정(우) ····· 83
[그림 5-20] 알리칸테 대학 사제관의 1층 도면 ····· 83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알바로 시자(Álvaro Joaquim de Melo Siza Vieira)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현대 건축가이다. 그는 기억과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바탕으로 미니멀하고 시적인 형태와 공간을 보여주며 프로젝트마다 대지의 컨텍스트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삽입하는 건축을 보여준다.

시자의 다양한 디자인 스펙트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현요소나 구축방식에 집중하거나, 시자의 건축을 의미화하려는 시도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시자의 건축을 형태적으로 유형화하는데 목적을 두거나 개념에 대해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시자의 건축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1)]

그러나 윌리엄 커티스(William J. R. Curtis)가

"시자의 작품을 역사적 또는 비평적인 분류함 속에 꽂아 넣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건물 그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작가의 사고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형태 어휘와 재료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2)]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자의 건축에 대해, 공간에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실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공간의 체험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3)]하거나 건축가의 작품을 체험에 관한 이론적 틀에 맞춰 분석[4)]하는 경우 또는 공간적 체험을 구조화[5)]하려는 것이 많다.

---

1)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과 한계점에 대해서는 2.2절에서 다루고 있다.

2) William J. R. Curtis, 'Notes on Invention: Álvaro Siza', 「Álvaro Siza 1995 1999」, Madrid : El Croquis

3) 박희령, 김억, 감각적 공간 체험에 따른 촉각적 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6.06,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2, 변대중, 이영수, 현대 건축의 시간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1 등이 있다.

4) 홍덕기, 구영민,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 05,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4, 임현성, 건축적 공간체험을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6, 정수영, 전시공간에서의 Scene의 구조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3 등이 있다.

5) 고성룡, 안우진, 장소성을 체험하는 현대박물관의 공간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5.10, 이지영, 공간경험의 다차원성에 따른 인간의 감

이러한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건축 공간론과 공간 체험의 이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건축공간론[6]에서, 건축에서 공간을 경험하는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형이상학적인 공간 인식과 경험구조는 데카르트 좌표 체계에 의한 균질적인 공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성과 장소성의 회복,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1960년대 이후의 공간론은 장소로서의 공간, 공간을 지각하는 인간의 존재,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에서의 체험 등을 강조한다.[7] 이는 아리스토텔레스-훗설-하이데거-사르트르-메를로 퐁티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실존주의적 철학에 근거하고 독일의 철학가인 볼노우(O. F. Bollnow, 1963)의 '체험된 공간' 개념과 크리스찬 노베르그 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1972)의 '실존적 공간' 개념, 블루머와 무어(K.C. Bloomer/ C.W. Moore, 1977)의 '신체-상(Body-Image) 이론'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공간의 지각(perception)과 인지(cognition), 그에 따른 인간의 행태(behavior)에 관한 연구가 장 삐아제(Jean Piaget)[8]의 '쉐마(Schema)' 개념과 함께 환경 심리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져왔고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건축 디자인이 다루어지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에 관한 이론적 틀을 통해 시자의 건축 공간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시자는 자신의 건축에 대해 이론적 틀로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건축 디자인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직관과 감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10] 따라서 시자의 건축을 이론적 틀에 맞추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자의 건축 언어에 집중하여 시자 건축에서의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반응 유형과 공간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황미영, 임채진, 전시 공간 디자인의 시지각적 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12 등이 있다.

6) 아돌프 힐덴브란트(Adolf Hildebrand, 1893), 아우구스트 슈마르조(August Schmarsow, 1893) 등의 이론을 시작으로 모홀리 나기(Moholy-Nagy, 1928), 브루노 제비(Bruno Zevi, 1957) 등에 의해 건축에서 공간의 의미와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되었다. - 반 데 벤 (Van de Ven, Space in Architecture, 1976),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공역, 기문당, 1987

7)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spacetime, 2001

8) 스위스의 아동 심리학자 (1896-1980)

9)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p.30

10) Alejandro Zaera, 'Getting through turbulence: interview with Álvaro Siza', 「Álvaro Siza 68/69 + 95」, Madrid : El Croquis, 1995

본 연구에서는 알바로 시자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사람들이 공간을 경험하는 측면에서의 연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보고, 시자의 건축에서 공간 체험의 개념과 그 구현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자의 공간적 체험을 구현하는 방식의 특징과 이러한 시자의 건축이 현대 건축에서 가지는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1.2.1. 연구의 방법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예비 고찰: 알바로 시자 건축의 맥락’에서는 알바로 시자의 건축적 입장과 특색이 형성된 배경을 포르투갈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고찰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20세기의 역사와 건축에 관한 글을 정리한다. 또한 시자의 건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시자의 건축 언어에 대해 고찰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본 연구 방향과 방법을 설정한다.

‘제 3장 체험에 관한 알바로 시자의 건축 언어’에서는 시자의 건축에 관한 비평과 시자의 언술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시자 건축에서의 체험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간에서의 체험을 유발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제 4장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에서는 도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특징을 정리한다. 분석에서는 공간체험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간 시퀀스[11]에 유의하여 사진 자료 및 내용을 정리한다.

‘제 5장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구현공간 구성방식의 특징’에서는 제 4장에서 분석한 구현 방식의 확장된 개념으로 작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공간체험을 유발하는 시자의 건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밝힌다.

‘제 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체험의 측면에서 바라본 시자의 건축이 현대 건축에서 가지는 의의를 밝힌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표 1-1 연구흐름도>와 같다.

---

11) 시퀀스(Sequence)는 시점의 이동에 따라서 연속되는 광경을 파악하여 시각세계를 통합하고 공간의 지각과 경험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 용어로 쓰인다. 공간의 연속적인 장면들의 흐름인 시퀀스는 공간간의 연결 방식의 조절과 전개의 구축에 의해 생성되며, 사람이 공간을 경험하면서 겪는 시퀀스의 변화와 다양성은 더 많은 행위와 체험을 유발한다. -변대중, 이영수, 현대 건축의 시간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1

공간 시퀀스는 공간의 배열을 통해 체험 방식을 파악하는 근거가 되며, 공간의 체험은 건축언어로 치환 할 수 있어 건축 공간을 파악하는 수단이 된다.

-고성룡, 안우진, 장소성을 체험하는 현대박물관의 공간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5.10

<표 1-1 연구흐름도>

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알바로 시자의 건축을 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을 정리하고 체험을 유발하는 구현방식과 특징에 대한 분석

제 2장 예비 고찰: 알바로 시자 건축의 맥락

알바로 시자의 건축적 입장의 형성 배경

알바로 시자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
-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 현실의 변형(Transformation)
-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
-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
- 공간의 체험

⇩

알바로 시자 건축공간의 체험에 관한 심층연구 필요

제 3장 체험에 관한 알바로 시자의 건축 언어

알바로 시자의 언술과 비평을 통한 건축 언어 도출
- 움직임, 미완성, 관계

알바로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 정리
-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 사용자에 의한 공간 해석
-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제 4장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움직임을 통한 체험 유발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 매스의 분절 - 모호한 입구 - 다양한 층위의 벽	- 비워진 공간 -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 형태와 공간의 반전 -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 도시 조직과의 조화 또는 반전

제 5 장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구현공간 구성방식의 특징

시퀀스의 조정을 통한 공간의 체험 유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체험의 통합	연속적 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장소의 구현
- 다양한 시퀀스의 가능성 -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	- 다양한 시점에서 같은 공간의 반복적경험 - 공통요소를 통한 반복적 인식	- 빛과 창 - 공간의 관입

1.2.2. 연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기에 앞서 시자의 작품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자는 1952년부터 첫 작품을 시작하였고 그의 초기 대표작인 보아노바 찻집(Boa Nova Tea House, 1958-1963)과 레카 다 팔메이라 수영장(Leca da Palmeira Swimming Pool, 1961-1966)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인 주택과 은행, 식당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보아노바 찻집(좌), 레카 다 팔메이라 수영장(우)

1974년에 포르투갈은 40년간의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혁명(Revolution of the Carnations)이 일어났고, 그 이후 SAAL(Serviço de Apoio Ambulatório Local)이라는 집합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지원단체가 조직된다. 시자는 이 조직에서 São Victor 집합주택(1974-1977), Bouça 집합주택(1975-1977), Quinta da malagueira 집합주택(1977-1997) 등의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집합주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1-2 Quinta da malagueira 집합주택(좌), Bouça 집합주택(우)

그러나 1976년 포르투갈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고. 시자는 국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찾게 된다.[12)13)] 한편, 시자의 SAAL 프로젝트 경험은 해외에서 봤을 때 그를 '사회적

12) "1976년 이후, 포르투갈에서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다. Evora프로젝트는 공공 재정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산되었다... 포르토에서 내 입장도 그리 좋지 못했다. 포르토의 의회를 위한 상업 공간 프로젝트도 중단되었다."

-Alejandro Zaera, 'Getting through turbulence: interview with Álvaro Siza', *ibid.*

13) Brigitte Fleck, 「Álvaro Siza」, New York: E&FN SPON, 1995에서 'The time of

참여 건축가'로 느껴지게 하였고 이후 'Bonjour Tristesse'로 알려진 베를린의 Schlesisches Tor 재개발 프로젝트와 헤이그의 Schilderswijk 와 Doedijnstraat 재개발 프로젝트 등 해외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게 된다.[14]

그림 1-3 Schlesisches Tor 재개발 프로젝트(좌), Schilderswijk (중), Doedijnstraat 재개발 프로젝트(우)

1985년부터 포르토 대학의 건축학부 파빌리온(Carlos Ramos Pavilion)을 시작으로, 시자는 포르투갈 내에서도 학교, 전시시설, 도서관 등 규모가 큰 공공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며 시자의 건축적 활동 범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의 흐름을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자 한다.

시자의 건축을 공간체험의 측면에서 대해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공건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시자가 본격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건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1985년 이후의 작품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공간의 체험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하였다. 이는 <표 1-2>에 정리한 바와 같다.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는 1980년대 이전까지의 시자의 작품과 그 이후의 작품이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천창과 구조적 요소, 혹은 그의 이전 작업에서 인식하기 힘들었던 '과장된 건축형상'을 통해서, 후에 요소 및 성격을 내부 공간에서 잡는다. 시자의 최근 작품을 보면 드라마나 희극을 보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건축의 장면 밖에까지

---

competitions'에 이 시기의 작품들과 상황이 나타난다.

14) Giovanni Leoni, 'Construction, Experience, Languages.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Motta Architettura, 2009

활기를 만들어내는 플롯의 고안물이라는 것이다."[15]

이는 시자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의 입장과 상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1985년 이후의 건축을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년 도	작 품 명	위 치
1986-1993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Setubal, Portugal
1987-1994	Faculty of Architecture Oporto University	Oporto, Portugal
1988-1993	Galician Contemporary Arts Museum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1990-1997	Canavezes Church	Marco de Canavezes, Portugal
1991-1999	Serralves Contemporary art Museum	Oporto, Portugal
1993-1997	Revigres exhibition hall	Agueda, Portugal
1995-1997	Portuguese Pavilion, Expo '98	Lisbon, Portugal
1995-1998	Rectorate of the University of Alicante	San Vicente del Raspeig, Spain
1998-2008	Ibere Camargo Museum	Porto Alegre, Brazil
2006-2009	Mimesis Museum	Paju Book City, Korea

표 1-2 연구의 대상

15) 라파엘 모네오,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8인의 현대 건축가」, 임기택 옮김. 공간사, 2008, p.298

제 2 장 예비 고찰: 알바로 시자 건축의 맥락

2.1. 건축적 입장의 형성 배경

2.2. 알바로 시자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

2.3. 알바로 시자 건축에서 공간의 체험에 관한 연구 부족

2.1. 건축적 입장의 형성 배경

시자가 그의 작업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생각의 기초로 돌아가는 시기는 1974년 혁명 이전의 사건, 즉 포르투갈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들이 이루어진 때이다.[16] 이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국가의 혹은 지역적인 전통건축을 옹호하는 입장과 유럽의 근대화와 문화운동의 영향으로 국제주의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입장과의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17]

1926년부터 1974년까지의 포르투갈은 공화당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로, 제 2 공화국(Estado Novo, 1932-1968)은 살라자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에 의해 통치된 독재정권이다. 이들은 개발되지 않은 농경지역에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카를로스 라모스[18](Carlos Ramos)의 1929년 주택 프로젝트와 Cristino da Silva의 1930년 Beja고등학교 디자인에 반영된 근대건축을 지지하면서, 근대건축의 양식과 프로그램적인 감각에 흥미를 가지는 듯했다.[19]

그러나 1935년 이후 살라자르의 정치적 특징에 반하는 건축을 선언하고 1940년 리스본에서 전체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국제 포르투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정치적 색은 더 강해졌다.[20] 이후, 파시즘의 정치 인사들을 동반한 상황에서 '포르투갈의 집 Portugese house'이라는 포르투갈 건축의 진정한 형태에 대한 토론이 열리게 된다. 이 토론에서는 지방과 에스타도 노보의 보수적인 이념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근대운동의 흐름과 국제주의 스타일을 수용하는 진보적인 건축이 대립하였다.[21] 그러나 결과는 제 3제국(1933-1945년 사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의 건축을 모방하는, 시대에 뒤쳐진 형태의 작품들로 나타났다.[22]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발로, 1947년 리스본 건축가인 Francisco Keil do Amaral(1910-1975)은 Cadernos de Arquitectura 저널에, 과학적 기준에 기초한 포르투갈 건축의 전통에 관한 비판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페

---

16) Giovanni Leoni, *ibid.*
17) 'Nuno Grande, Portugal: News from the Far-West', A+U, p.70
18) 시자의 스승인 타보라의 스승이자, 타보라를 1956년에 ESBAP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이다. 시자는 1985년 포르토 대학 캠퍼스 안에 카를로스 라모스 파빌리온을 설계하였다. 라모스와 타보라는 다른 세대의 건축가이지만 둘 모두, 억압적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근대 건축의 건강한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 Álvaro Siza, Kenneth Frampton, 'Kenneth Frampton,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 The Work of Alvaro Siza,', 「Á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2000, p.11
20) Kenneth Frampton, *ibid.*
21) Nuno Grande, *ibid.*
22) Kenneth Frampton, *ibid.*

르난도 타보라[23](Fernando Távora, 1923-2005)는 '포르투갈 집의 문제(The Problem of Portuguese House)'라는 에세이를 출판하여 포르투갈의 건축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전통건축과 현대건축과의 새로운 접목에 대해 주장하였다.[24]

"대중적인 일반 집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능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사람들은...집들을 국가적인, 그리고 외국의 전시에 맞춰 양식화하고 있다. 완전히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이끄는 이러한 유형의 태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25]

1955년 10월, 이러한 목소리들을 수용한 계획이 세워졌고, 건축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포르투갈의 전 지역에 흩어져 3개월에 걸쳐 50,000km에 이르는 곳의 조사를 진행하였다.[26] 그들은 조사내용을 사진, 드로잉, 필름 등으로 정리하고, 포르투갈의 유명 건축물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이전의 '포르투갈 집'과 같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여 포르투갈 전통의 형태적 복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가들에 의한 정확한 분석은 모방적 언어의 규칙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국가적 특징이 부재하였으며, 특정개인과 상관없는 불변의 가치들에 의해 평가된 건설적인 교훈을 가져왔다.[27]

이러한 경험은 포르투갈 북서쪽의 Minho 지방을 담당한 그룹에 속해 있었던 타보라에 의해 해석되었고, 구체화되어 처음으로 1961년 'Popular Architecture in Portugal'로 출판되었다. 타보라는 살라자르의 형식주의적 전통과 국제주의적 건축 사이에서 포르투갈의 근대 건축에 대해 '제 3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건축적 위치를 정립하였고 이는 그의 지어진 건물들과 ESBAP(Ecola Superior de Belas Arte do Porto, 현재 포르토 대학)에서의 교육적 실천의 기초가 되었다.[28] 그의 건축에서는 1950년대의 지역 건축가들이 받아들인 근대 건축의 정교한 구문론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 이는 그의 졸업논문인 '바다를 내려다보는 주택(A House Overlooking the Sea)' 과 테니스 파빌리온(Tennis pavilion for

---

23) 시자가 ESBAP에 다닐 때 교수님이며, 졸업 후 타보라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시자가 건축가가 된 후에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함께 작업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는 CIAM의 포르투갈 지회의 대표로서, 8차, 10차, 11차 회의를 담당하였다. -*ibid.*
24) *ibid.*
25) *ibid.*
26) Giovanni Leoni, *ibid.*
27) *ibid.*
2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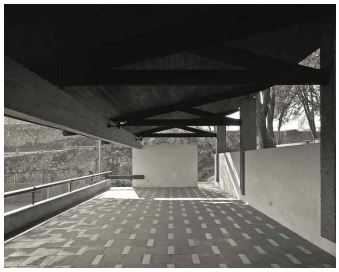


그림 2-1 타보라, 테니스파빌리온

the Quinta da Conceição park, 1956-1960) 등에서 브루털리즘과 유사한 신전통주의로 나타난다.[29]

시자는 이러한 경험과 건축적 입장을 가진 타보라에게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1955년부터 1958년까지 그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장 주의한 것은 타보라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타보라의 Ofir에 있는 주택(1957)이나 Vila da Feira market(1953)과 같은 작품들은 나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두 번째 주택을 디자인할 때에는 그의 주택의 창문에서 카메라로 찍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 때 타보라는 나에게 '주택을 디자인 하는 건축가들은 눈을 감는다'고 말해주었다"[30]

그림 2-2 타보라, Vila da Feira market

'유명한 건축 popular architecture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인 도덕성과 취향이 지역적 건설의 논리와 더 가까워지도록 하였다. 또한 타보라의 작업은 사회적 환경과 유럽의 근대 건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며 60년대 건축의 기반이 되었다.

포르투갈의 근대건축과 전통건축에 대한 대립과 혼란은 주변 국가들의 경향과 지역적인 표현 사이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기초를 만들었고 그러한 의심과 비평을 통해 포르투갈 건축의 특이성을 갖게 되었다.[31]

1974년 혁명이후, 알바로 시자로 대표되는 포르토 대학의 교육은 사회적 프로그램과 도시 컨텍스트, 집단적인 주거의 스케일을 강조하고, 이전의 합리주의적 경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주거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이는 1980년대 유럽 건축의 주류에게 대안적인 참고가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에 이단적

29) Kenneth Frampton, *ibid.*
30) Giovanni Leoni, *ibid.* 재인용
31) 'Jorge Figueira, The Perfect Periphery', A+U; Apr. 2007, Vol. 439, p.12

인 입장으로서 독자적인 방식이었다.[32]

전통과 현대건축을 연결하면서도 새로운 언어에 대해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시자의 건축적 태도는 이와 같이 포르투갈의 근대화과정에서 포르투갈의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선대 건축가들의 영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흐름은 라모스-타보라-시자로 이어지며, 긴 시간동안 내려온 선대 건축과 자신의 가치관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창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2. 알바로 시자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

시자에 관한 비평적 글들은 시자의 작업이 독단적 틀이나 추상적 개념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의 작업을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정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은 제안된 프로젝트마다 실제적 '삶'을 다루고, 각 대지마다 주변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요인과 보이지 않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33]

"나의 건축은 미리 만들어진 언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언어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변화중인 상황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건축에서 우리가 언어의 통일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벌써 그 단계를 지나쳐 버린다. 미리 만들어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언어는 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1978)[34]

시자가 스스로의 건축에 대해 말하듯 규정된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건축에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시자의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비평적 지역주의, 현실의 변형, 정신적 건축, 삶을 담은 건축, 공간의 체험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와 한계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32) 'Nuno Grande, Portugal: News from the Far-West', A+U; Apr. 2007, Vol. 439, p.70
33) Marc Dubois, 'Alvaro Siza Vieira',「Álvaro Siza: Inside the City」,Whitney Library of Design, 1998
34) Rob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Á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e 1, Issue 3, 1996 재인용

2.2.1. 비판적 지역주의

케네스 프램튼은 그의 에세이 '비판적 지역주의를 향하여: 저항적 건축을 위한 여섯 가지 관점'[35]에서 20세기 말의 보편적인 도시 문명화와 모더니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36]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지역주의(Regionalism)나 대중주의(Populism), 잃어버린 전통(Vernacular)을 되살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모더니티와 전통 그리고 보편적 문명과 지역적 문화 사이의 변증법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의 풍조, 문화, 신화, 공예 기술, 빛, 지형 등 토착의 요소들 간 상호작용과 함께 외부의 패러다임과 섞여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끊임없이 번성한다.[37]

프램튼은 '비판적 지역주의의 전망'[38] 이라는 글에서 비판적 지역주의의 사례로 몇몇 건축가들과 함께 시자의 건축을 들고 있다. 지형에 순응하는 건물의 구성과 지역적인 재료의 사용, 공예 작업, 지역적 빛의 절묘한 여과와 침투 등을 언급하며 시자의 건물이 시각적이거나 그래픽적이기 보다는 촉각적이고 물질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시자의 건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어 지역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이 글은 시자의 건축이 문화적 균질화에 저항하는 건축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였다.[39]

이러한 평에 대해 시자가 1983년 언급한 것이 있다.

"몇 년 전 그리고 최근, 사람들은 나의 작품들이 지역의 전통 건축에 기반을 둔다고 이야기한다.…전통은 혁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계승된 것의 도입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보수주의자이자 전통주의자이다. 나는 갈등, 타협, 절충, 변형 사이에서 움직인다."[40]

---

35) 1983년 Hal Foster가 편집한 책,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Seattle: Bay Press에 실려 출판되었다. p.16-30

36) 이 말은 건축 이론가인 Alex Tzonis 와 Liliane Lefaivre가 에세이 'The Grid and the Pathway'(1981)에서 만든 말로 프램튼이 다시 사용한 것이다.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37)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The MIT Press, Vol.20 (1983), p.147-162

38) *ibid.* 이 글은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London : Thames and Hudson, 3rd ed(1992)에 재편집되어 실렸다.

39) Nuno Grande, *ibid.*

40) 'Álvaro Siza, On My Work', 「A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2000

시자의 건축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도 있지만[41] 시자의 건축을 토착 문화와 모더니즘 건축과의 절충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점은 하나의 중요한 해석으로 자리 잡았다.

로버트 레빗(Rovert A. Levit)은 시자의 건축이 정해진 언어가 없음을 포르투갈 건축의 역사성과 대지에의 순응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42] 포르투갈의 토속건축은 정해진 '스타일(style)'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life)'이 반영된 것이다. '유형(type)'은 그 자체의 밀폐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완전함, 안정됨, 비인간성, 형식화 등과 관계한다. 레빗은 시자의 건축에도 'U'자 형태와 같은 자주 발견되는 형태적 유형이 있지만 이는 과거와 현재의 다층적인 의미인 역사성을 지니고, 토착건축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과 닮아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어들이 서로 공명하며 말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하고 사람과 역사를 끊임없이 치환하는 언어적 특성에 대해 말하며, 이러한 언어적 감각과 역사적인 땅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형태 등을 연결하는 구체화로서 시자의 건축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모더니즘 건축의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건축 방법론과 그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고 있으며 도시 속에서 시자의 건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실질적인 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의 전통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지역의 문화인지, 그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43]

2.2.2. 현실의 변형

"건축가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에 대응하여 변형(transform)하는 전형들로 끊임없이 작업한다."[44]

---

41) 'Peter A. Testa,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MIT, 1984'와 'Nelson Mota, Between populism and dogma Álvaro Siza's third way, Footprint: Delft School of Design journal, Mar. 2011, p.35-58'등이 있다.
테스타는 시자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현요소들이 포르투갈 지역의 특징만 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축 방법, 혹은 로마와 바로크 등의 건축사에서부터 내려온 형식, 피카소, 엘 리시츠키와 같은 국외 예술가의 영향 등을 밝히고 있다.

42) Rob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A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n 1, Issue 3, 1996

43) 이는 테스타의 비판적 입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ibid.*

44) Álvaro Siza, <Interview>, *Plan Construction* (PAN), 11차 모임, 1980년 5월. *ibid.*

"(대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중요하며 현실에서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각각의 장소는 모두 다르고 복잡하다. 이것이 내가 미리 만들어진 (pre-established) 언어를 적용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작업을 이론화하기 어려워 하는 이유이다."[45]

시자는 위와 같이 언급하며 각 프로젝트마다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변형을 통한 건축을 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정해둔 방법론과 건축적 언어 없이 대지의 조건(situation)에 바탕을 둔 건축을 함으로써 끊임없는 재사고와 도전을 통해 넓은 다양성의 스펙트럼을 만들고 있다.

이 '변형'이라는 말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프램튼은 '비판적 변형으로서의 건축'[46]에서 시자는 정해진 유형이나 한정되거나 안정된 형태 자체를 우선하기 보다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시자는 건축가에게, 컨텍스트와의 조화뿐 아니라 반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추구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프램튼은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흡수하고 모순을 뛰어넘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찾게 하며 이는 상황마다 다르게 결정된다고 하였다. 시자의 이러한 입장은 물리적인 컨텍스트의 변형 뿐 아니라 지역적 전통에 대한 감성과 같이 과거와 연결되는 시간적 차원에서도 나타나며, 연속적인 변형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47]

피터 테스타 역시 시자의 건축은 삶과 문화와 현실을 해석하여 형태화하며 새로운 건축 언어를 진화시킨다고 하였다.[48] 시자의 건축은 디자인요소들과 전체적인 형태사이의 불균형에 대해 새로운 통합을 표현하며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의 기존의 구분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다. 테스타는 시자의 왜곡되고 약간 불안정한 형태와 공간이 단순히 서양 사회의 조각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사람과 카오스적인 세계 간의 상호연결하려는 근본적인 연습의 결과라고 하였다. 시자의 작업은 예술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사람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문화와 구체적인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해석하고 있다. 시자의 생각과 작업은, 건축은 발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시자의 매 작품에 나타나는 것은 새

재인용.

45) 'Álvaro Siza, Entretien avec Álvaro Siza', Architecture, Mouvement, Continuité (AMC), No.44, 1978. Peter A. Testa, *ibid.* 재인용.

46) 'Kenneth Frampton,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 The Work of Álvaro Siza', 「A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2000

47) *ibid.*

48) Peter A. Testa, 'Álvaro Siza: Sensationist architecture', 「Álvaro Siza: Works and Projects 1954-1992」

로운 삶과 문화와 건축을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마르크 두보이스(Marc Dubois)는 시자의 건축에 대해 '균형의 연약함(The Fragility of Equilibrium)' 이라고 표현하였다.[49] 시자가 말하는 '변형'의 과정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며 요소들 자체가 점점 발전하는 방법에 기초한다. 두보이스는 시자가 문화와 도시,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그러한 현실적 힘들의 상호작용을 건축적 프로세스에서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것에 더해 건축의 '연약함'과 '시학'을 '건축적 요소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처럼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윌프레드 왕(Wilfried Wang)은 시자의 자기 회의성(self-doubting)이 디자인 과정에서 관찰과 조사, 의문과 예측을 통해 단순한 창조를 초월하도록 하며, 부지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활성화한다고 하였다.[50] 이러한 시자의 디자인 과정은 분석에서 통합으로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반대로, 열려있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시자의 분석적 과정은 부지의 관찰이라는 형태 속에서 나타나며 스케치나 건축주와의 토론 등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그는 시자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다음에 올 순간에 민감하다. 나는 이 변형에 참가한다. 부지는 무엇인가 동결된 불변부동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변형중이며, 사람이 이 변형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또한 윌프레드 왕은 시자의 건축에서 단순히 '특이한' 혹은 '시적인' 차원만을 발견하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기 힘든 표현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그 이미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진화되어 가는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시자의 공헌을 간과하게 된다고 하였다.[51] 시자의 작업은 건설적인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업적의 통합을 보여주는 흔치않은 예이며 시자의 건물은 문화를 변형하는 과정의 일부이고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지닌다.

변형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시자의 건축을 대지의 변형, 전통의 변형, 주변과의 연속적 관계를 생성하기 위한 변형, 문화와 사회적 차원의 변형 등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시자가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시자의 건축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

---

49) Marc Dubois, *ibid.*
50) 'Wilfried Wang, Notes on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1954-1988」, A+U 작가시리즈, 1990
51) Wilfried Wang, *ibid.*

에서의 언급이 부재하다. 또한 추상적인 설명들이 많아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2.3. 정신적 활동

"최초의 아이디어에는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과거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강력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축적과 같다...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상상에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경험이나 기억 등이 가득 차 있다."[52]

피터 테스타는 이러한 시자의 건축을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이라고 표현하였다.[53] 시자의 감각론적 건축은 체계화되지 않고 규칙의 역사에 있어 가장 엄격한 연구프로그램을 대표하며,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건축과 자연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구성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시자의 지어진 작품은 독립적이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의 대상이며, 살아있는 건축으로 나타난다. 시자의 건축은 개념적이거나 닫혀있지 않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특정한 조건들을 재정의하기 위해 즉각 반응한다. 시자의 감각, 기억, 상상은 다가올 세계를 인간의 삶으로서 재해석하고 능동적인 결정을 하는 정신적 과정의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자가 역사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혼합된 디자인으로서, 미래를 향한 지점으로 다가간다고 하였다.

비토리오 그레고티(Vittorio Gregotti)는 시자의 건축이 비평적인 혹은 문학적인 방법으로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그의 건축이 '이전의 잘못된 질서를 고치려는 자주적인 인류학적 시도'로서, 특수한 '시간적 차원'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주변의 것들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전의 경험, 기억과 관계 맺는다고 하였다.[54]

시자의 감각과 직관적인 건축은 시자의 건축을 대표하는 평가이지만 시자의

---

52) Alejandro Zaera, 'Getting through turbulence: interview with Alvaro Siza', 「Alvaro Siza 68/69 + 95」, Madrid : El Croquis, 1995

53) 'Peter A. Testa, Cosa Mental: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Álvaro Siza」, Basel ; Boston : Birkhauser Verlag, 1996

54) Text by Kenneth Frampton, Nuno Portas, Alexander Alves Costa, Pierluigi Nicolin, 'Vittorio Gregotti "Architecture recenti di Alvaro Siza", in Controspazio, 9, settembre 1972'「Alvaro Siza: Poetic Profession」,Electa/Rizzoli New York, 1986, p.186

정신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객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특성은 시자의 건축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점이기도 하다.

2.2.4.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

지오반니 레오니(Giovanni Leoni)는 전형적인 20세기 열망이 건축을 필연적인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자는 새로운 언어 또는 새로운 건설적 발명의 원초적인 면에 공들임으로서 건축에 대한 집단적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는 시자의 디자인을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우연적이고 대단히 복잡한 삶과, 그것이 구체화인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건축적 물체의 삶, 이 두 가지의 힘이 연결되기 위한 충돌이라고 정의했다.[55] 시자 개인의 발명보다 이러한 외부적 힘이 우세하도록 하여 시자만의 독특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면이 시자의 디자인을 현대건축에서 이례적인 자리에 있도록 한다고 한다.

넬슨 모타(Nelson Mota)는 시자의 건축이 모더니즘의 도그마(dogma)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포퓰리즘 사이에서 제 3의 방법을 보여주는 대안적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컨텍스트와 대조되는 것들이 병존하는 관계를 통한 건축, 그리고 미래의 사용자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참여시킴으로서 건축가와 미래의 주거자와의 생산적 충돌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용자의 참여적 프로세스에 관한 사례는 시자의 SAAL, Quinta da Malagueira 프로젝트 등과 같은 사회적 공동주택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의 다음 글에서 시자 건축에서 사용자에 의해 완성되는 디자인 방식을 알 수 있다.

"시자는 우리에게 작위적인 연극을 하려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감탄하게 해왔다...그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본을 통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그러나 시자의 최종적인 작업은 그가 감독하는 등장인물들로 인해 활기차게 된다."[56]

건축가의 생산적인 방법론도 건축에 있어 중요하지만 사람의 삶과 건축이 어떻게 만나는지, 삶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시자의 건축을, 사람들의 삶, 문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건축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그런 의미에

55) Giovanni Leoni, *ibid.*
56) 라파엘 모네오, *ibid.*

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테스타의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어떤 점이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는지 드러나는 것도 있으나, 다른 글에서는 주로 개념적인 어휘들로 시자의 건축을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2.2.5. 공간에서의 체험

윌리엄 커티스(William J. R. Curtis)는 시자의 건축에 대해 도시와 풍경이라는 양피지에 삽입되는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중첩되어 있는 질서체계 속에서 새로운 전체성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각들은 형태를 추상화하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흥을 주고 빛, 질감, 움직임을 통해 공간에서의 감각적인 탐사를 하도록 하며 하나의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고양시킨다고 하였다.[57] 또한 시자의 건축은 철학이나 과학의 그럴듯한 인용을 통해 혁신이 조장될 때에도 이론적인 합리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전통이라는 자산을 시적인 해석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자의 건물들은 추상화된 지형의 윤곽, 단 차이, 그리고 경로들과 함께 효과를 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의 건물들은 투명하고 불투명한 여러 겹의 켜를 지나는 움직임의 경험을 촉발한다. 장면들과 내부공간의 삽화는 방문자들이 공간을 지나 움직이게 만들 수 있도록 조율되어 있다...시자의 건물은 다양한 건축적 산책 속에서 그리고 수렴하고 분기하는 선들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지각상의 모호성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한다."[58]

로버트 레빗(Rovert A. Levit)은 건축 역사에서 시자의 작업과 관계있는 것은 '건축적 산책로'의 발전과 움직이는 주체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59] 시자의 건축에 대한 다음 글에서 사람의 존재와 움직임을 통한 지각에 관한 내용이 잘 드러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연결되어있는 건축적 산책로에 대한 역사적인 진화는 사람의 주체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는 건축을 고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질서의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을

---

57) 'William J. R. Curtis, Notes on Invention: Álvaro Siza', 「Álvaro Siza 1995 1999」, Madrid : El Croquis
58) 'William J. R. Curtis, Álvaro Siza: an architecture of edges', 「Álvaro Siza 68/69+95」, Madrid : El Croquis 95, 1999
59) Rober A. Levit, *ibid.*

자극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산책로의 개념적인 질서보다는 감각적인 관점에 의해 예고된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의 변형은 이 에세이의 언어에 대한 원래의 논의에 관하여 중요하다."[60]

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감각적, 직관적, 시적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는 시자의 건축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의 감흥을 유도하는 시자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는 시자의 건축공간 구성방식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감흥과 느낌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나 그 객관성에 있어 한계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60) Rober A. Levit, *ibid.*

2.3. 알바로 시자 건축공간의 체험에 관한 심층연구 필요

2.3.1. 기존 연구의 한계점 보완

시자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 지역주의, 현실의 변형, 정신적 활동,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 공간의 체험 등 다섯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61]

분 류	저 자	제 목	출 처	내용 및 한계
비판적 지역주의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The MIT Press, 1983	지역성과 보편성사이에서 새로운 건축 방법론으로서 시자 건축에 주목하고 있으나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의 실질적인 효과적 측면에 대한 내용 부족.
	Rov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Á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n 1, Issue 3, 1996	
현실의 변형	Kenneth Frampton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	「A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2000	대지의 변형, 전통의 변형, 문화와 삶의 변형 등 다양한 주제로 다루고 있으나 추상적인 설명들이 많아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또한 시자의 건축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언급이 부재하다.
	Peter A. Testa	'Álvaro Siza: Sensationist architecture',	「Álvaro Siza: Works and Projects 1954-1992」	
	Marc Dubois	Álvaro Siza Vieira	「Álvaro Siza: Inside the City」,Whitney Library of Design, 1998	

61) 2.2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내 연구들에 대한 내용도 표에 함께 정리하였다.

	Wilfried Wang	Notes on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1954-1988」 A+U 작가시리즈	
	박지영	'땅'에 대응하는 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지형을 반영하는 시자의 건축적 특징에 집중하여 매스의 구성을 유형화, 형태적 특징에 집중
	박지은	'변형관점으로 본 알바로 시자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1	시자의 전반적인 건축적 특징을 변형적 관점으로 정리 및 작품을 분석
정신적 활동	Peter A. Testa	Cosa Mental: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Basel ; Boston : Birkhauser Verlag, 1996	시자 특유의 감각과 직관에 의한 독특한 건축은 시자의 건축을 대표하지만 정신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객관화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간단히 언급만 되고 있다.
	Vittorio Gregotti	Architecture recenti di Alvaro Siza	in Controspazio, 9, settembre 1972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	Giovanni Leoni	Construction, Experience, Languages	「Álvaro Siza」, Motta Architettura, 2009	시자의 건축과 사용 사람들의 삶, 문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있지만 삶, 문화, 사회적 등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시자 건축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Nelson Mota	Between populism and dogma Álvaro Siza's third way	Footprint: Delft School of Design journal, Mar. 2011	
	Rafael Moneo	Álvaro Siza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8인의 현대 건축가」, 임기택 옮김. 공간사, 2008	
공간의 체험	William J. R. Curtis	Notes on Invention: Álvaro Siza	Álvaro Siza 1995 1999, Madrid: El Croquis	감각적, 직관적, 시적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되는 시자의 건축을 사람들

	William J. R. Curtis	Álvaro Siza: an architecture of edges	Álvaro Siza 68/69+95, Madrid : El Croquis	이 직접 체험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감흥과 느낌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나 그 객관성에 있어 한계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Rov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Á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e 1, Issue 3, 1996	
기타 - 특정 표현요소에 집중	곽 승	알바로 시자의 아베이로 도서관에 나타난 빛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시자건축에서 나타나는 빛, 창 등의 단편적인 표현 요소에 집중하여 작품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있다.
	곽 승, 김현섭	알바로 시자 건축의 빛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론, 2011	
	성민우	알바로 시자 건축의 표현 요소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론, 2009	
	김연준	천창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 연합회 논문집, 2007	

표 2-1 기존 연구의 내용 및 한계

시자의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시자의 건축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들 또한 논점을 가지면서도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주제별로 분류한 기존 연구들의 내용이 관계를 맺고 있거나 상호 교차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위의 표를 간단히 재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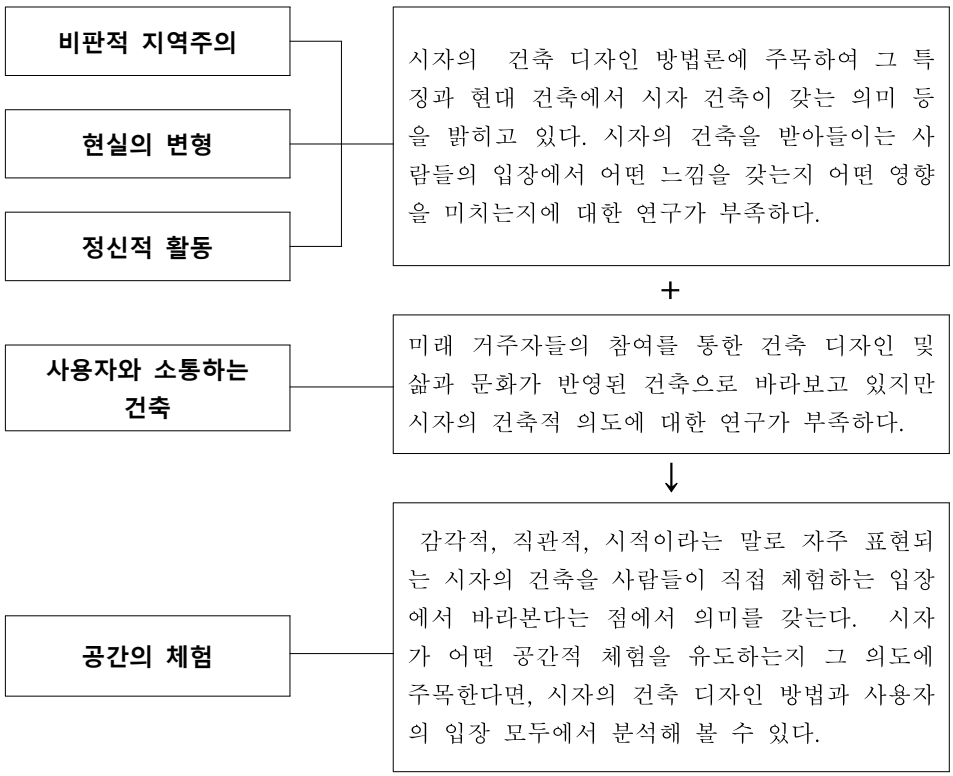


표 2-2 연구의 방향 설정 과정

위와 같이 '비판적 지역주의', '현실의 변형', '정신적 활동' 세 가지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시자의 건축 디자인 방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측면에서의 이해가 부족하고, '사용자와 소통하는 건축'의 관점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자의 건축적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공간의 체험'의 관점에서는 건축 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건축을 분석할 수 있으면서도 시자의 건축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에 임할 때 나는 건물 안을 마음속으로 걸어 볼 수 있을 때에만 그 상세들을 결정할 수 있다…공간들의 연속을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방문자로서, 소유자로서 혹은 미래에 건물을 방문할 아이들로서 그 속을 걸어볼 수 있어야한다. 공간을 방문하는 서로 다른 인물들에게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할 수 없을 때, 건축은 만들어질 수 없다."[62]

62) *ibid.*

위의 언술을 통해 시자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의 연속적인 전개와 흐름을 디자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자의 건축을 보는데 있어 형태적인 특성과 구축방법도 중요하지만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자의 건축을 공간의 체험에 관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음의 지오반니 레오니(Giovanni Leoni)의 언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자에 대한 다른 건축가들의 연구에서, 사람의 움직임과 지각에 의해 생산되는 건축에 대한 주제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유심히 볼 가치가 있다."[63]

그러나 공간의 체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언급에서 그치거나, 레카 다 팔메이라 수영장 (Leca da Palmeira swimming pool)과 갈리시안 현대미술관(Galician Contemporary arts Museum)과 같은 특정한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64]

따라서 시자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의 공간에서의 체험과 시자가 사람들에게 공간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구현 방식 및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3.2 연구의 난점과 방법 제시

현대 건축에서 공간 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안도다다오(Ando Tadao)와 스티븐 홀(Steven Holl)의 건축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안도 다다오는 자신의 건축에서 '신타이'를 통한 경험과 '신타이와 정서와의 교감'을 강조하고, 스티븐 홀은 메를로 퐁티(Merleau-Ponty)의 현상학에서 영감을 받아 공간과 신체 감각과의 상호 얽힘으로서의 '정박(Anchoring)'개념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65]

---

63) Giovanni Leoni, *ibid.*

64) 앞에서 언급한 William J. R. Curtis의 연구들 뿐 아니라 공간 체험에 관한 연구들, 즉 박희령, 김억, 감각적 공간 체험에 따른 촉각적 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2006.06, 최현철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건축 공간 인식의 불연속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임현성, 건축적 공간체험을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2006 등에서도 시자의 특정 작품들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65) 정진원, 소병일, 안도 타다오 건축의 현상학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10, 전인목, 안도 다다오의 명화의 정원을 통한 체험적 공간분석, 대한건축

그림 2-3 스티븐 홀, 키아스마 현대미술관 (좌) 안도 다다오, 빛의 교회와 스미요시 주택(우)

그러나 시자는 자신의 건축에 대해서 언어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으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이란 어떤 것인지, 또는 자신이 건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공간적 경험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건축일반, 철학 또는 지각 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공간체험에 관한 이론에서 틀을 도출해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시자만의 독특한 건축에서의 공간 체험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 체험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자의 건축에 대한 비평 중 공간의 체험과 관련된 비평가들의 언술과, 시자의 언술 중 체험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적 체험을 의도하는지 알아보고 시자의 건축에서 공간 체험의 개념을 정의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귀납적 방법은 명확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시자 건축에서 체험의 개념과 그 구현방식에 관한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학회논문집, 2011.08, 홍덕기, 구영민,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 05,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4 등이 있다.

제 3 장 체험에 관한 알바로 시자의 건축 언어

3.1. 시자의 언술과 비평을 통한 분석틀 설정

3.2. 알바로 시자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

3.3. 소결: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공간

3.1. 알바로 시자의 언술과 비평을 통한 분석틀 설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자는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술을 정리할 때 건축 공간의 체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나 비슷한 용어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가 되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신체 감각의 자극을 통해 지각하는 연속적 장면과,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상상, 회상, 연상, 감흥 등의 심리적 반응을 포함한다.[66] 따라서 이러한 체험과 관련 있는 언급들을 모두 정리 하였다. 또한 제2장의 기존 연구에서 '정신적 활동'의 관점에서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자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건축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67]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시자의 언술도 함께 정리하였다.

3.1.1. 알바로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비평

비평가	언 술	내 용
Robert A. Levit	"시자의 작업과 관계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닥은 건축적 산책로의 발전과 움직이는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원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연결되어있는 건축적 산책로에 대한 역사적인 진화는 사람의 주체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는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질서의 관점으로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상태를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원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연관된 건축적 산책로의 역사적인 발전은 건축을 엄격하고 손에 잡히는 질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 안에 인간을 주제로 받아들였다. 인간은 풍경의 연속을 따라 이동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감흥을 받게 된다."[68]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감각의 자극과 감흥 유발
William	"빛과 그림자의 변화, 볼륨의 수축과 팽창은 이와 같은	

66) 권영걸,「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2001과 길성호,「현대건축사고론」, spacetime, 2001 등을 참고하였다.

67) "기억이 나의 창작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 'William J.R. Curti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Álvaro Siza 1995 1999, Madrid : El Croquis

68) Robert A. Levit, *ibid.*

69) 'William J.R. Curtis, Álvaro Siza: an architecture of edges', Álvaro Siza 68/69,

J.R. Curtis	내/외부의 역동적인 특징들을 강화한다. 낮은 벤치나 곡면의 카운터, 얇은 레일이나 각이 진 선반과 같은 설치물들은 부유하는 벽면과 천장, 바닥면 사이에 일상적인 사용의 스케일에 따라 또 다른 리듬으로 놓여 있다. 백색으로 칠해진 표면, 대리석 면, 그리고 유리로 된 투명한 면들은 추상적인 표현에 물질적 존재감을 준다...이것이 Siza로 하여금 책을 읽는다거나 시상식을 한다거나 도시의 경관을 바라본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순간들을 조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자의 어떤 건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자신들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된 사회적인 무대로서의 특성을 띠기도 한다."[69]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공간의 리듬, 사람들의 행동 유발
William J.R. Curtis	"시자의 건축은 방문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감흥을 주며 빛, 질감, 움직임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탐사를 하도록 만든다. 그의 건물들은 대지를 가로질러 그려진 벡터들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고양시킨다."[70]	감각의 자극과 감흥 유발
William J.R. Curtis	"시자의 많은 건축적 개념들은 형상과 배경 (figure and ground) 사이의 모호성에 의존하고 있다. 내부의 공간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비어있음으로 취급된다. 건물들은 '건축적 산책'의 방법에 의해 시간을 두고 경험된다. 사람들은 압축과 팽창, 조정된 장면들, 투시도적인 후퇴, 빛의 다양한 강도 등에 의해 인도된다. 중력의 느낌은 -그리고 그 반대의 무게가 없는 느낌은- 건축적 경험의 역동성에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시자의 건물들은 충분한 투명성과 의미를 가진 층들의 전개를 만들어낸다."[71]	해석과 변화의 여지, 움직이면서 경험
Carlos Machado	"시자의 건축에서 디자인이 자연과 맺는 관계, 그리고 존재하고 있었던 건축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공간과 시간, 두 가지 연속성은 조직 또는 밖과 안 사이의 길의 조정으로서 길(path)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72]	자연과의 관계 도시와의 연속성 움직이면서 경험
Carlos Machado	"스케일의 정의는 단위부터 형태와 장소의 순응으로서 아마도 프로젝트의 *진실의 순간과* 일치할 것이다. 시자의 지형학의 건축은 세상의 환경은 조성하는 스케일의 무한한 다양성에 대한 답으로서 또한, 건물 또는 건물군들이 *현실을 만드는* 다양한 관계들의 반영으로	스케일의 조화 또는 대조를 통한 공간과

	서 지어진다.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들을 반영하는 다른 스케일과 드러내놓고 맞설 때 시자의 건축은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운율에 변화가 있는, 대위법적인 답을 찾는다... 그래서 소위 서로 서로 관계된, 모든 형태들이 도시와 주변 자연에 의미를 주는 상보적 관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자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의 문제점은 *그 자신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잃어버린 본질적인 현명함은 치수, 크기와 비례에 대한 연구와 공간간의 관계를 지배해 왔다"는 것에 대한 탐구이다. "세상 전체와 세상에 대한 기억의 전체는 끊임없이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 시자의 말은 최초의 동기이고 궁극적인 확인이다."[73]	주변 환경, 자연과의 관계 설정
Rafael Moneo	"시자는 우리에게 작위적인 연극을 하려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감탄하게 해왔다...그는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본을 통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그러나 시자의 최종적인 작업은 그가 감독하는 등장인물들로 인해 활기차게 된다."[74]	사용자에 의한 해석과 사건의 여지

표 3-1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비평가들의 언술

3.1.2. 알바로 시자의 체험에 관한 언술

언 술	내 용
"프로젝트에 임할 때 나는 건물 안을 마음속으로 걸어 볼 수 있을 때에만 그 상세들을 결정할 수 있다…공간들의 연속을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방문자로서, 소유자로서 혹은 미래에 건물을 방문할 아이들로서 그 속을 걸어볼 수 있어야한다. 공간을 방문하는 서로 다른	움직이면서 지각하는 공간, 공간의 시퀀스, 공간간의 관계 설정

1994, Madrid : El Croquis
70) 'William J. R. Curtis, Notes on Invention: Álvaro Siza', Alvaro Siza 1995 1999, Madrid : El Croquis
71) *ibid.*
72) 'Carlos Machado, Álvaro Siza; paths, body and memory', Álvaro Siza,「Álvaro Siza : アルヴァロ·シザの建築」, TOTO出版, 2007
73) *ibid.*
74) 라파엘 모네오, *ibid.*
75) *ibid.*

인물들에게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할 수 없을 때, 건축은 만들어질 수 없다."[75]	
"(건물의 조절을 통해 지각하게 되는 조망을 유도하는 일은) 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를 질식시키고 말 것이다. 공간의 경험에 대한 통제와,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게 해주는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형태의 왜곡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이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악이 될 수 있을 뿐이다."[76]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
"많은 이들이 나에게 내가 지지하는 이론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다...일종의 파도에 표류하는 배이다...나는 감히 나의 손을 조타장치에 놓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나는 명확한 방법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길은 명확하지 않다."[77]	불확정적인 디자인 방법과 상황에 따른 변화의 여지
"나는 모든 완성된 건물을 첫 암석으로 생각하며, 나머지는 역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가장 참을성이 많고 거주자를 비롯한 많은 요소들이 관여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해로운 겉치레와 고정된 도시를 낳게 될 것이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체들이 지니게 되는 특성을 좋아하는데 이럴 경우 심지어 실수를 통해서도 깊이를 얻게 되고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이다"[78]	의도적인 미완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여지
"나의 디자인의 각각은 미묘한 차이 가운데 떠다니는 이미지 가운데 한 번의 확고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한다. 그러한 현실의 떠다니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로 디자인은 다소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79]	자유로운 해석과 변화의 여지를 두면서도 디자인의 명확성을 강조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건축에서 명확성에 가치를 두며 그것을 추구한다....건물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그 형태가 명확하면 할수록, 건물의 방문으로부터 얻는 것 또한 명확해진다. 존재를 띠게 되는 순간부터 건물의 형태와 느낌은 일관되고 정확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가지는 매 순간, 사용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그것은 그렇게 남아 있어야만 한다."[80]	
"자연과 건설간의 관계는 건축에서 중요하다. 이 관계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끊임없는 소스이고 나에게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다… 건축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에서부터 공간으로, 그 결과 공간들 간의 관계로 발전하고 마침내 그것은 자연과 만난다. 이 연속성에 대한 생각은 … 없어지지 않는다는 모순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자연과의 관계 공간 간의 관계와 연속성

의미를 가진다."[81]	
"도시의 평형은 그것의 안정, 그리고 살기에 적합함은 그것들이 시각적으로 지각가능하든 기억 속에서만 환기가 되든, 그러한(포르토의 조밀조밀하게 배치된 매끈한 벽을 가진 건물들과 교회, 기념비, 병원, 다리, 수도원 등의 큰 건물과의 관계) 대조에 달려있다."[82]	도시 건물들 간의 스케일 관계와 지각
"도시의 건축은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는 건물의 몰이해를 극복하도록 한다. 상호 관계를 무시한 개별적인 상태에서는 이들은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비율, 재료, 색은 신호를 내보내고 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부족한 것을 향한 손길을 내밀며 모든 도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도시의 연속성은 복합적인 과정으로 어떤 경우 형태의 재생 그 자체와 혼동이 되기도 한다. 변형은 연속성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필요를 넘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83]	비율, 재료, 색 등의 조화를 통한 도시의 분위기 형성. 건물들 간의 상호 관계. 복합적인 과정으로서의 도시의 연속성
"알함브라(Alhambra)에서는 연속적인 외부 정원과 중정들을 밝은 곳으로부터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가며 지나간다. 공간들은 다양한 크기와 저마다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경험의 말미에) 당신은 스스로가 갑작스레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을 가로지르는 전망을 허용하는 경계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증식시키는 이 방법은 밀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알함브라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하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건축의 중심적인 차원 중의 하나이다."[84]	움직이면서 연속적인 공간의 다양성을 체험

표 3-2 시자의 체험에 언술

---

76) William J.R. Curti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77) 라파엘 모네오, *ibid.*
78)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79) Álvaro Siza, ′On my work′, 「Alvaro Siza: Complete Works」, London : Phaidon, 2000, p.71
80) Álvaro Siza, ′Fragments of a Discourse′, 「Álvaro Siza: Works and Projects 1954-1992」,Editorial Gustavo Gili , 1993 p.92
81) ′Álvaro Siza, Repetir nunca é repetir′, Imaginar a Evidência. Carlos Machado, *ibid. 재인용*
82) Álvaro Siza, 「Álvaro Siza: Inside the City」, Whitney Library of Design, 1998
83) *ibid.*
84) William J.R. Curti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그림 3-1 알함브라 궁전의 정원의 연속적 경험

3.1.3. 분석틀 설정

비평가들과 시자의 언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자는 공간들 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공간의 시퀀스를 계획하며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우연적인 행동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자는 자신이 행하는 디자인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해결로 이르게 되는 것을 선호하고, 우연적인 것이 다중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즐긴다.[85] 이러한 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시자는 건축 공간에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여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시자의 시적이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유발하는 직관적인 공간은, 정해진 규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정제되고 명확한 건축적 언어를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자는 자신의 건축적 경향이나 특성에 대해 언어적으로 규명하지 않지만 위의 언급들을 통해 사람이 경험하는 측면에서 공간을 디자인하고, 사용자에 의한 변화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평가들과 시자의 언술에서 주요어휘들을 추출한 후 비슷한 의미를 갖는 말들을 분류해본 결과 <표 3-3>과 같이 움직임, 미완성, 관계로 나왔고 이를 시자의 건축 공간의 체험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85) 라파엘 모네오,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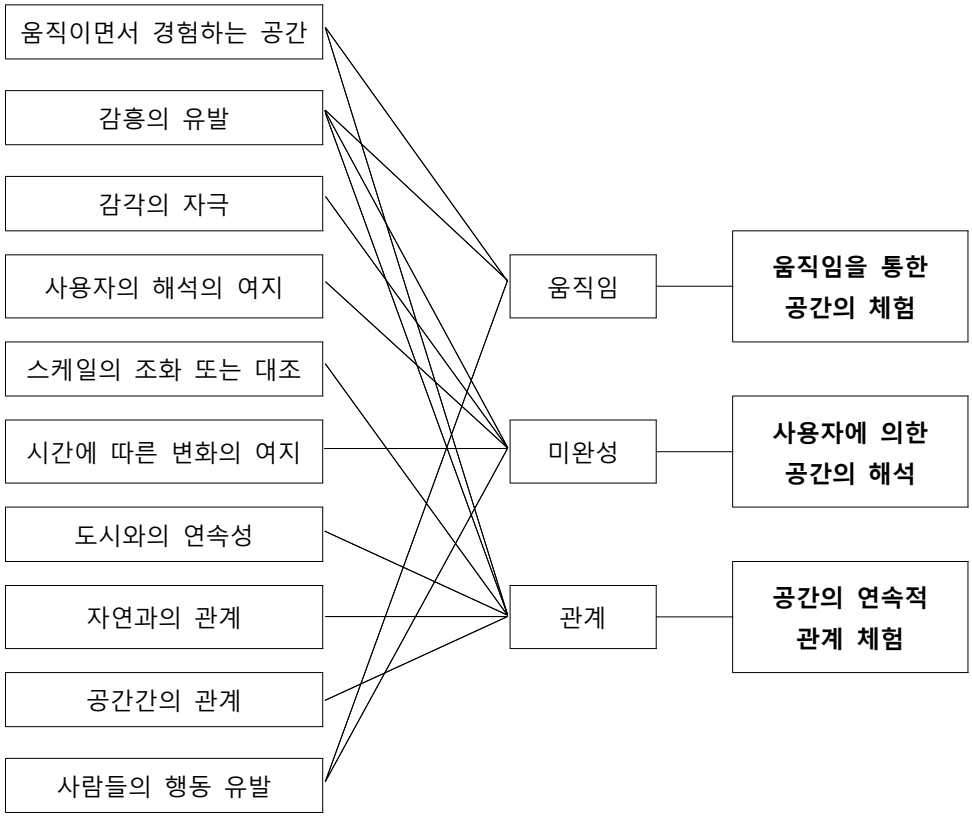


표 3-3 시자 건축의 체험에 관한 분석틀 도출과정

공간적 체험은 사람들의 행위와 감각의 자극, 심리적 감흥 등의 반응이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틀 도출과정에서도 시자의 체험과 관련된 어휘들과 그 개념이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어휘가 다수의 개념과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감흥의 유발'의 경우 감흥의 유발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촉진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해석과 사색이 일어나는 등 시자의 의도적인 미완성과 관련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도출된 분석틀로 시자의 건축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알바로 시자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의 개념

3.2.1.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1) 스케치에 나타나는 '동적 지각'[86]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공간의 장면을 생각하며 디자인하는 과정은 시자의 스케치에서도 잘 나타난다.[87] 관찰자의 시점에서 지각되는 공간감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그러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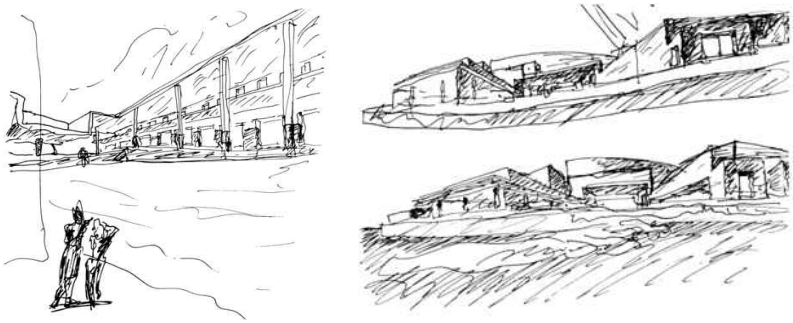


그림 3-2 세투발 교육대학 스케치

"건축은 많은 부분 움직임의 구성에 의존한다. 스케치에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스케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어떤 경우 최종적인 건축물의 형태 안에서의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과는 관련이 많다. 이것은 사물이 건축이 되기

---

86) 독일의 조각가인 아돌프 힐덴브란트(Adolf Hildebrand)는『조형미술의 형식』(1893)에서 사람의 시각을 순수시각과 동적 시각으로 구분하였다. 순수시각은 관찰자의 두 눈이 평행을 이루고 신체가 특정한 원거리 지점에 국한 될 때 하나의 통일된 2차원적 평면상인 원거리 상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동적시각은 관찰자가 이동을 하며 대상물에 접근할 때 연속적인 3차원적 인상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루돌프 힐덴브란트 (Das Problem der Form in der bildenden Kunst)(1893), 조창섭 역,『조형미술의 형식』, 민음사, 1989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지각을 보여주는 스케치라는 의미에서 '동적 시각'이라는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87) 시자에게 스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드로잉은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형태이다. 건축가에게는 배우는 방법이며,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변형하기 위해서 등 다른 많은 작업들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형태이기도 하다."

-Álvaro Siza, 'Order Means Bringing Opposites Together'「Álvaro Siza」, Motta Architettura, 2009, p.92

까지 흐르는 방법을 다룬다."[88]

또한 시자의 여행 스케치에 관한 책[89]에는 기존 회화의 구도와는 달리 대충 잡은 듯한 각도에서 그린 장면들이 보인다. 그의 스케치에는 원근화법에서처럼 보는 사람이 상상된 공간의 꼭지점에 위치하지 않는다. 대상들이 왜곡되거나 시점이 너무 낮게 떨어지기도 하고 전경의 물체와 배경의 대상들이 병치되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거닐면서 보는 뷰와 같이, 대상이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스케치 너머로 걸어들어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우리가 도시의 공간을 움직이면서 지각하는 것처럼, 연속적인 흐름을 함축하는 계속되는 일련의 뷰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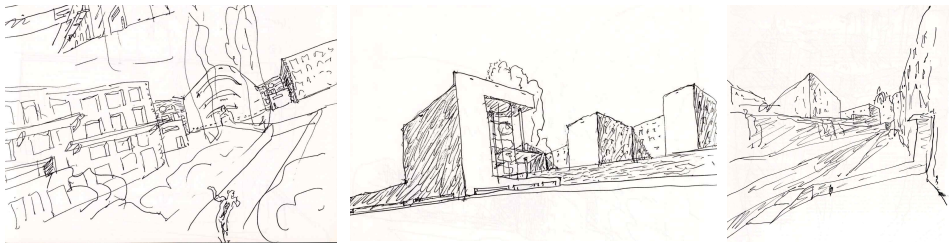


그림 3-3 Corner Situation (좌), Design for a studio in the interior of the block (중), ascent to the Carmo ruins (우)

(2) 매스의 분절

"나는 사이트를 방문할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한다...대지는 그 자체로 유용하다. 무엇이 될지 혹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그 반대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91]

시자의 건축은 대지의 지형에 순응하고, 주변 건물의 스케일과 상충되지 않도록 분절된 매스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큰 미술관이나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분절된 매스들의 연결과 중첩으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절된 매스로 이루어진 건물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수많은 장면들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절된 매스들은 부분적 경험만으로는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인식될 수 없고, 건물의 한 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그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모습

88)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89) Brigitte Fleck, Álvaro Siza, Wilfried Wang, 「Álvaro Siza : city sketches = stadtskizzen = desenhos urbanos」,Basel : Birkhäuser, 1994
90) Robert A. Levit, *ibid.*
91)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외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사람이 직접 움직임으로써 몸소 경험해야만 건물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경험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킨다.

(3) 모호한 입구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파사드에서 입구의 크기나 캐노피의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정면성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자의 건축에서 입구는 정면 파사드에서 강조되기보다는, 시자가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동선을 따라 가면 벽 사이 틈새 공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자는 한 번에 입구를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흐름을 받아들인 연속적인 벽의 구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건물과 외부와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천천히 진입하게 된다.

입구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외부 공간에서 내부 공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선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간적 경험을 유발하고 있다.

(4) 다양한 층위의 벽

모더니즘 건축은 구조적 단순성과 시각 중심적인 조망이 특징이다. 이는 전체적인 공간의 명료함이 한눈에 들어오는 투명한 공간[92]으로 이야기 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사람의 움직임과 경험을 유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간의 불투명성은 총체적인 형태를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기고 몸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경험적이고 촉각적인 공간이 되도록 한다.[93]

시자는 벽의 꺾임과 중첩 등을 통해 써 공간의 깊이[94]와 관입을 만들고 공간의 다양한 층을 만든다. 방문자들은 이러한 공간의 깊이와 층을 직접 움직이면서 체험하고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면의 중첩, 공간의 중첩을 통한 깊이 있는 공간은 배후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

---

92) 근대건축에서 투명성 개념은 단순히 재료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단순성과 한 가지 이상의 시각적 특질을 동시에 지각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형태의 시지각적 조망을 의미하는 투명성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즘은 불투명성과 모호함을 강조하였다. -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93)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박영욱, *ibid.*의 내용과, 김준, 유재우, 근대 이후 시각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투명성 개념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94) 조지 케페스는 면의 중합을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제하고, 중첩되어 있는 형태를 볼 때 전면과 후면 사이의 차이, 즉 공간의 깊이를 경험한다고 한다. - *ibid.*

고, 상상하게 하며 직접 그 곳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각각의 공간들은 다양한 크기와 특징을 가짐으로써 움직이면서 경험해 나가는 행위를 자극한다.

3.2.2.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시자의 건축은 시적이고 직관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다. 사람들은 시자의 공간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인 감흥을 받게 되고 그것은 개인마다 가진 고유의 감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시자는 건축에 완전함을 두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완성되어갈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이용자의 행위나 사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시자의 이러한 공간은 중정이나 마당과 같은 채워지지 않고 비워진 공간과 틈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통해 나타난다.

(1) 비워진 공간

시자의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중정 공간은 그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감흥 등에 대한 것보다는 형태적인 유형에 더 주목받아 왔다.[95]

중정이나 마당과 같이 비워진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장소이자, 비워진 그 자체만으로도 빛, 그림자, 날씨 등의 자연적 요소들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사색의 장소일 수 있다. 시자의 건축에서도 이러한 비워진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공간에 대한 해석과 우연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2)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 공감각적 체험은 주로 빛에 의한 효과나 그에 따른 음영과 분위기를 통해 일어난다. 시자의 빛은 과하지 않은 창문, 벽의 틈새 공간, 천장, 천장과 조형적 구조물 사이의 틈을 타고 나오는 빛 등이 있다. 이러한 빛은 태양의 고도, 날씨의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음영의 변화로 끊임없이 달리지는 풍부한 공간감을 드러낸다.

---

95) Rob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Á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n 1, Issue 3), Wilfried Wang, Notes on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1954-1988」 A,+U 작가시리즈, 성민우, 알바로 시자 건축의 표현 요소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론, 2009 등에서 중정의 형태의 유형을 나눠 설명하고 있다.

시자 특유의 조형적인 형태 또는 내부 공간의 벽, 천장 면들과 만난 빛은 시각적, 촉각적인 공감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시자는 “건축에 관한 예는 항상 작가, 특히 시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의 엄격함과 분명함에 관심을 가지며 매일 시를 읽는다.[96] 시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완벽히 정확한 단어를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시 만들면서 아름답고 투명함으로 가득 찬 형태를 만든다.[97]

시자의 공간은 시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이며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정제되고 정확한 건축적 언어를 만들려는 시자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3.3.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건축을 가르치는데 땅에 대한 인식과 해석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와 땅의 조각으로서의 오브젝트 사이에는 어디에도 반대의 아이디어가 없다.”[98]

이 말은 대지와 건물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자의 건축을 잘 나타낸다. 시자가 말하는 연속적 관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반전도 포함하며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조화와 반전의 공명을 통해 도시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99] 또한 도시의 조직은 끊임없는 건설과 해체가 일어나는 변화와 전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건축가는 이러한 멈추지 않는 도시의 활동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히 관계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100]

이러한 연속적 관계는 새로운 건축이 도시 환경과 맞닿는 경우와, 자연과 관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변 컨텍스트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건축 안에서의 공간과 공간간의 관계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1) 자연과의 관계

---

96)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97) *ibid.*
98) ‘Kenneth Frampton,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 The Work of Álvaro Siza’, *ibid.* 재인용
99) Álvaro Siza, 「Álvaro Siza: Inside the City」, *ibid.*
100) *ibid.*

시자의 건축과 주변 자연과의 관계는 주로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 상호 관입하는 공간 또는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을 통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도 자연과의 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시자는 창을 통해 내부와 외부와의 과장되지 않은 연속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내부에서 외부를 향한 과잉된 노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을 느끼게 하며 너무 많은 빛의 존재는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한다.[101] 창의 위치와 모양은 내부 용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파사드에서의 적절한 비율과 도시에서 느끼는 리듬과 관계로서 고려된다. 또한 중요한 순간에 선택적으로 창을 만듦으로서 풍경을 담고, 경험자의 감흥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한다. 방문자는 한 폭의 그림처럼 걸린 창을 통해 외부 공간과 소통하는 건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려는 시자의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전체적인 건축적 형태와 프로그램의 결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도시와의 관계

도시 컨텍스트와 맞닿는 경우 시자의 건축은 주변 지역의 기존 건물들 사이에 새로 삽입되는 건물의 스케일과 재료에 대한 고민과 해답으로 나타난다.

시자가 말하는 스케일의 정의는 형태와 장소에 대한 순응으로서,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102] 시자의 지형에 순응하는 (topological) 건축은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건물 군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건물의 재료와 색의 선택 또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주변의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색의 선택이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보다 복합적이고 개방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색을 논할 때는 빛, 기후, 콘텍스트, 장소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모두 함께 거론하는 것이다. 색은 모든 물리적인 것에서 발견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존재하는 것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만약 에보라(Evora)에 건축을 한다면 나는 흰 색을 선택할 것인데 도시가 흰 색이기 때문이며 내가 제안하는 새로운 건축물은 구 도시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03]

---

101)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Alvaro Siza', *ibid.* p.35
102) Carlos Machado, Alvaro Siza; paths, body and memory, *ibid.*
103) 'The meaning of things, A conversation with Alvaro Siza', *ibid.* p.41

(3) 공간간의 관계

시자의 건축은 형태와 공간과의 반전 그리고 시퀀스 상에서의 공간감의 반전과 같은 공간간의 관계의 조절을 통해 사람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다음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하게 된다.

외부에서 보이는 매스의 형태는 기하학적이고 수직과 수평적인 선들의 교차가 강조된다. 또한 절제된 창의 뚫림으로 외부는 견고하고 미니멀한 파사드를 갖는다. 이에 반해 내부공간은 시자의 섬세한 기하학의 조절에 의해 사선 또는 곡선이 강조된 역동적 투시도를 갖는다. 또한 견고한 매스와는 의외성을 느끼게 하는 과잉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빛이 유입되어 밝은 내부 공간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하학적이고 견고한 외부 매스와 해체된 느낌의 기하학과 밝은 내부공간이 대조적인 관계를 갖는다. 방문자는 이러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의외의 반전을 체험하면서 심리적 자극을 받게 된다.

외부의 형태와 내부공간과의 반전된 모습 뿐 아니라, 같은 외부 또는 같은 내부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경험할 때에도 공간간의 반전된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코너를 돌았을 때, 층간 이동을 했을 때와 같이 갑자기 열리는 공간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시자의 건축에서 공간 시퀀스는 단일한 건물에서만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 또는 도시에서 건물까지 진입하는 과정으로부터 고려된다. 지형이나 도시 풍경과 같은 주변 맥락들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건축적 산책'을 만들고,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연속적 흐름 안에서 건축 공간 간의 반전을 통해 감흥을 유발한다.

3.3. 소결: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공간

제 3장에서는 알바로 시자의 건축을 공간의 체험적 입장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자의 건축에서 체험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시자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그 특성상 시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건축적 체험을 주고자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한 언급이나 직접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시자와 비평가들의 건축 공간의 체험과 관련된 언술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시자와 비평가들의 어휘를 추출한 결과를, '움직임', '미완성', '관계'라는 세 가지 단어로 분류하였고 이로써 시자 건축에서의 공간 체험은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건축적 산책과 관련된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은 시자의 스케치에서도 잘 나타나며 매스의 분절, 모호한 입구, 다양한 층위의 벽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은 시자의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변화의 여지와 사용자들에 의한 해석과 관계되며 중정이나 마당 등과 같은 비워진 공간과, 빛에 의한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적 감흥을 유발한다.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은 시자의 건축에서 체험이란 독립적인 건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자연과 조화 또는 반전을 통한 연속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창을 통한 자연과의 상호관입, 주변건물의 스케일과 재료에 대한 고려, 형태와 내부 공간과의 반전 등을 통해 외부공간부터 내부 공간까지의 공간간의 관계의 조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자의 건축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명확성과 미완성의 사이에서 사람들의 감흥과 해석을 유도하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간과 공간간의 연속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체험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매스의 분절	모호한 입구	다양한 층위의 벽	비워진 공간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도시 조직과의 조화 또는 반전	형태와 내부 공간의 반전

표 3-4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 방식 분석틀

제 4 장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

4.1. 움직임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2.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3.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4. 소결: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특징

4.1. 움직임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1.1. 매스의 분절

(1) 세투발 교육대학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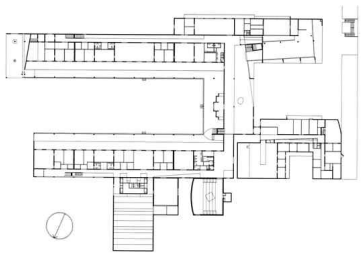
<table>
<tr><td rowspan="3">
  </td><td>위 치</td><td>Setubal, Portugal</td></tr>
<tr><td>년 도</td><td>1986-1993</td></tr>
<tr><td>프로그램</td><td>코르크 나무숲의 풍경이 펼쳐진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의 큰 중정 양쪽으로 긴 매스에는 개별 교실들이 자리하고, 체육관, 음악실 및 공연장 등은 북서쪽 입면에 면해 있다. 카페테리아, 도서관, 사무실 등의 매스들이 남서쪽의 작은 중정을 둘러싸고 배치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주변의 농지보다 조금 높게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H형태를 만들면서 매스들이 배치되어있다.</td></tr>
</table>

표 4-1 세투발 교육대학의 개요

세투발 교육대학은 주차장으로부터 건물 중심의 큰 중정까지 진입하는 과정부터 공간감의 변화를 느끼게 함으로써 서정적(lyrical)[104] 감흥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대지 동쪽에 지나가는 도로와 비탈진 대지가 만나는 곳에, 두 개의 긴 벽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방문자는 그 사이 틈으로 진입하게 된다. 넓게 펼쳐지던 시야는, 이 벽 사이에서 정면에 한정되게 되고 앞에 새로운 벽이 만드는 입구가 나타날 때까지 걸어 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입구를 지나면 비탈진 지형을 따라 비스듬한 지붕과 그 아래로 기울어진 기둥이 만드는 역동적인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주변을 향해 조금 열린 시야는 비탈진 지붕 아래의 공간을 지나면 잔디로 덮인 넓은 중정이 나타나게 된다.

세투발 교육대학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볼륨들이 지형을 따라 배치되어 있고, 분절된 매스들이 두 개의 중정을 형성하고 있다. 북동쪽에 낮고 큰 중정(B)에서 남서쪽의 조금 높고 도로변에 근접한 작은 중정(A)까지 사람들

104) 케네스 프램튼의 'Architecture as Critical Transformation'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림 4-1 주차장에서 중정까지의 진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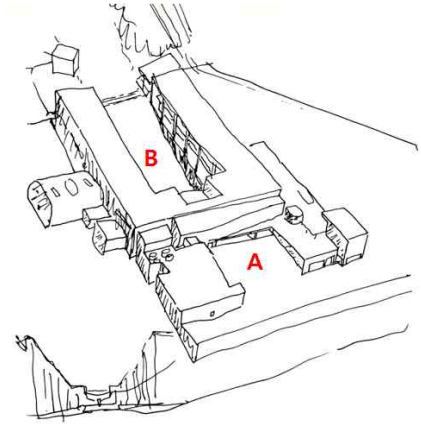


그림 4-2 세투발 교육대학 스케치
- 분절된 매스의 모습

은 이동하면서 다양한 장면들을 지각하게 된다. 분절된 매스들의 코너를 돌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간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공간의 형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음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직접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경험한 후 부분적인 기억들을 재조합하여 공간을 체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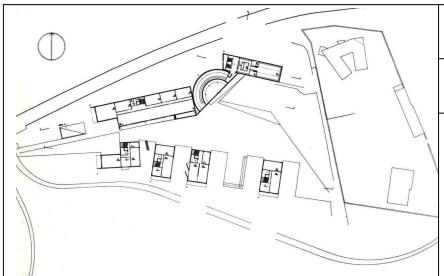
큰 중정(B)에서 작은 중정(A)까지의 시퀀스는 코너를 돌때 마다 반전을 거듭하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넓은 잔디와 코르크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자연적인 이미지와, 로지아를 연상하게 하는 고전적인 포티코의 이중적인 모습이 결합된 큰 중정에서 코너를 돌면 북쪽의 측면으로 가게 된다. 이곳은 체육관, 행위예술, 공연장, 도서관 등의 다양한 볼륨의 흰 매스들의 중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들쑥날쑥한 매스들의 연속을 지나면 작은 중정(A)가 나타난다. 이곳은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양쪽의 매스가 solid 와 void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정을 바라봤을 때 우측의 매점 건물은 유리벽으로 된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이고 사선의 기둥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반면 왼쪽의 도서관과 자원 부서 건물은 무겁고 견고하며 불투명한 느낌을 준다. 도서관·자원 부서 건물을 돌면,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불투명한 매스들이 중첩되어 다이나믹하면서도 수직과 수평의 교차가 특징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코너를 돌면 이 나타난다. 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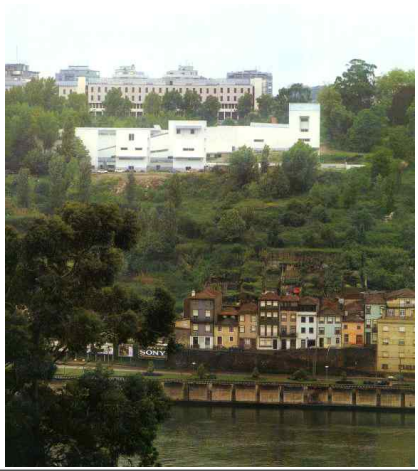
간은 클래식한 느낌의 포티고와, 숭고하게 서있는 보존된 나무가 이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B	--->	A
큰 중정-자연의 이미지와 대칭적, 클래식한 포티코	흰 벽들의 연속, 분절된 기하학적인 매스들의 중첩	작은중정-포장된 바닥, 양쪽의 대비(open vs solid)된 매스, 인공적인 느낌

표 4-2 세투발 교육대학의 시퀀스 상에서 공간감의 변화

(2)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Faculty of Architecture Oporto University)





위 치	Oporto, Portugal
년 도	1987-1994
프로그램	북쪽으로는 고속도로를 면해있고, 남쪽으로는 두오로(Douro)강 어귀를 굽어보고 있는 비탈진 지형에 삼각형 형태의 대지에 위치한다. 500명의 학생들을 위한 이 학교는, 북쪽의 건물들은 연속적인 형태를 띠고, 공연장, 행정사무실, 전시 갤러리, 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남쪽의 독립적인 매스들은 스튜디오와 교수실 등을 포함한다. 동쪽으로는 Carlos Ramos Pavilion(1981-1986작)의 대지가 자리하고 있다.

표 4-3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의 개요

그림 4-3 분절된 매스와 다양한 입면

이 캠퍼스의 입구는 삼각형 대지의 뾰족한 모서리에 위치하며 이곳에서부터 분절된 매스들의 사이 길을 따라 들어가 각 건물로 진입하게 된다. 분절된 매스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대비되는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건물들의 질서를 한 번에 잡아내기 힘들게 한다.

남쪽의 네 동으로 분절된 교실매스들은 사람의 얼굴이 추상화 된 것 같은 파사드를 가진다. 이들은 비슷한 스케일의 창과 차양의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른 외관을 가지며 이러한 입면의 다양함은 같은 매스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북쪽의 매스들은 기울어지고 왜곡된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들은 시각적으로 중첩되어 보이고 복잡한 기하학적 흐름과 변형들을 보여준다.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 이러한 장면의 흐름은 더욱 다양해지고 캠퍼스의 조경과 함께 끊임없는 공간감의 변화와 반전을 체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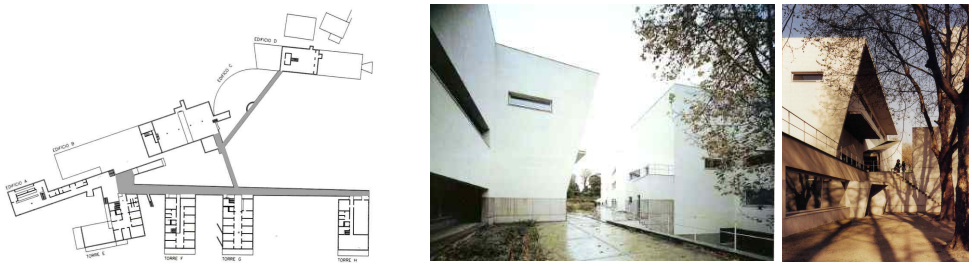


그림 4-4 지하1층 도면(좌), 분절된 매스들의 사이공간(중, 우)

분절된 매스들은 3m 아래의 지하 레벨에 위치한 선형의 갤러리 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토공사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상층의 분절된 각각의 매스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들이고, 교수나 학생, 방문객들은 목적에 따라 이러한 매스들의 사이 공간을 지나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이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움직이면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고 왜곡된 형태의 매스들에 의한 역동적인 공간감을 체험하며 자의적인 해석과 정서적 감흥이 유발되는 곳이다.

그림 4-5 다양한 스타일로 디자인된 계단

분절된 교실매스들에는 각각 코어, 두 개의 사무실, 두 개의 학생 스튜디오 등 같은 크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배치는 각 건물마다 달라서 매스마다 다른 평면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또한 같은 건축적 요소들을 갖지만 각각의 매스마다 다른 디테일을 갖는데, 손잡이, 재료, 계단을 감싸는 벽의 높이 등을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곳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활하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유형과 건축요소도 공간에서 다른 스타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각 교실 매스들은 동일한 빛을 주기 위해 비슷한 크기의 창들이 뚫려있지만 그 위치와 방향을 달리함으로써 사람의 위치에 따라 강과 정원, 마당 뿐 아니라 도로, 인도 등의 다양한 뷰를 조망하도록 한다.

그림 4-6 위치에 따라 보이는 다양한 뷰

(3) 카나베제스 교회 (Canavezes Church)

위 치	Marco de Canavezes, Portugal
년 도	1990-1997
프로그램	종교적인 복합단지를 형성하는 이 카톨릭 교회는 2층으로 이루어진 교회 및 장례를 위한 예배당 건물과, 회당 및 주일학교 건물 그리고 사제관 등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4 카나베제스 교회의 개요

카나베제스 교회를 디자인 하면서 시자는 공간과 사건, 전망의 연속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이디어에서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언급한다.[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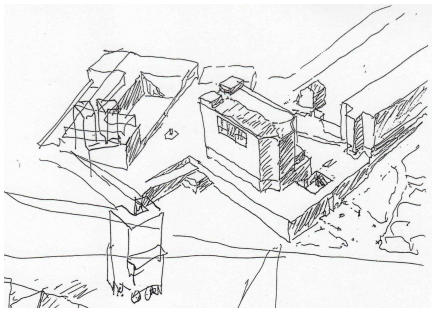


그림 4-7 카나베제스 교회의 매스의 배치

이 교회는 하나의 큰 매스가 아니라 기능이 다른 세 개의 매스가 지형을 따라 배치되었고 사람들은 계단과 경사로를 이용해 산책하듯 교회의 입구로 올라가게 된다. 교회를 향해 다가가면서 사람들의 움직이는 방향과 시야는 계속 변화한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가가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교회를 등지게 되고, 계단 끝에 올라서면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된다. 다시 방향을 회전하면 예배당 건물과 주일회관 건물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교회 입구 앞의 비어있는 이 공간은, 건물들 사이에서 중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이기도 하고, 교회의 의식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한다. 시자의 스케치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분절된 매스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카나베제스 교회의 지형을 따른 진입과정

(4)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 (Serralves Contemporary Art Museum)

위 치	Oporto, Portugal
년 도	1991-1999
프로그램	원래 과수원과 녹지 정원으로 쓰이던 대지에 들어선 세랄베스 미술관은 포르토의 새로운 현대미술관으로서, 여전히 주변 정원의 자

105) William J. R. Curtis, 'A conversation with Alvaro Siza',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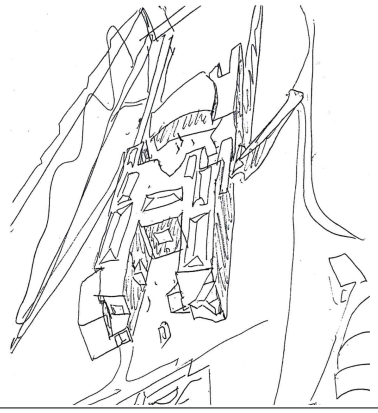
		연환경과 접하고 있다. 전시시설 및 서점, 선물가게, 카페테리아, 산책로, 도서관과 강당 등의 시설들이 있다. 전시시설과 그 이외의 시설들은 별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표 4-5 세랄베스 현대미술관의 개요

세랄베스 미술관은 현재 과수원과 녹지 정원의 땅에 지어져 자연에 둘러 싸여있다. 남북의 길이 방향 축으로 놓여있는 미술관은 지형의 고저차가 9m정도 대지에 놓여있다. 매스의 윗부분은 평평하지만 건물의 볼륨을 규정하는 수직 벽은 5.3%의 경사를 갖는다.

방문자들은 마치 정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지형을 따라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있는 길들을 거닐다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게 되기도 한다. 시자만의 독특한 감각의 기하학적 매스들은 이러한 건축적 산책에 사람들의 감흥과 움직임을 유발하고 있다. 입구는 북측의 중정에 위치하는데 3층으로 들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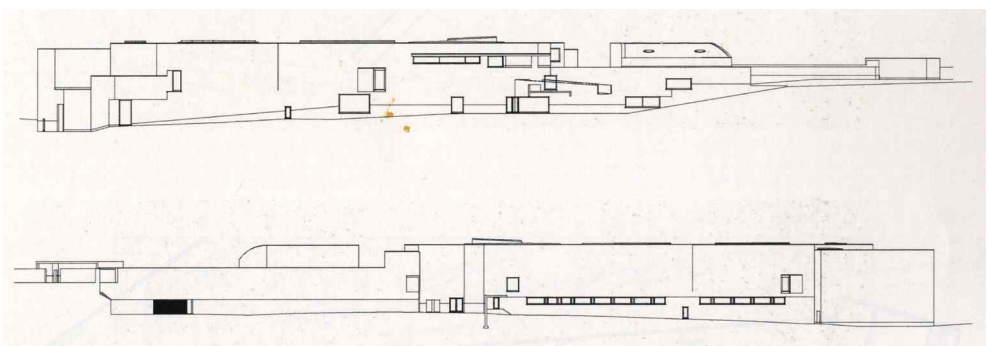


그림 4-9 경사진 대지에 위치한 세라발스 미술관의 입면

세라발스 뮤지엄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 시자는 6년이 넘는 시간동안 두 개의 대지에 4개의 디자인을 하였고 계획안들에는 큰 매스의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사진 땅 속으로 매스의 많은 부분이 묻히고 지상으로는 분절된 작은 매스들이 모인 복합체처럼 보이도록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절된 매스들의 배치를 통해 두 개의 중정을 비롯한 사이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두 중정은 사람들

이 직접 움직여서 모두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분절된 매스의 볼륨들이 만드는 기하학적 질서는 보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분절된 매스의 구성을 통한 전체 건물의 형성은 대지와 지형의 반영이라는 물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함으로써 공간 체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림 4-10 세랄베스 미술관의 매스의 분절(좌)과 분절된 매스들의 사이공간에 의한 중정(중, 우)

4.1.2. 모호한 입구

(1) 세투발 교육대학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삼면으로 둘러싸인 중정의 안쪽에는 코르크 나무 한그루와 특이한 조형성을 띠는 파사드가 방문자의 눈길을 끈다. 튀어나온 두 개의 매스는 직선과 곡선의 대비된 형태를 보여준다. 곡선의 매스는 계단실로서, 소라와 같은 바다 생물체의 껍데기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106] 중정 양쪽의 포티코를 덮는 지붕과 연결되어 가운데서 만나는 지붕은 직교하면서 아래로 내려와 그 아래로 돌출된 입구를 품고 있다. 그러나 튀어나온 매스의 정면에서 보이는 유리는 입구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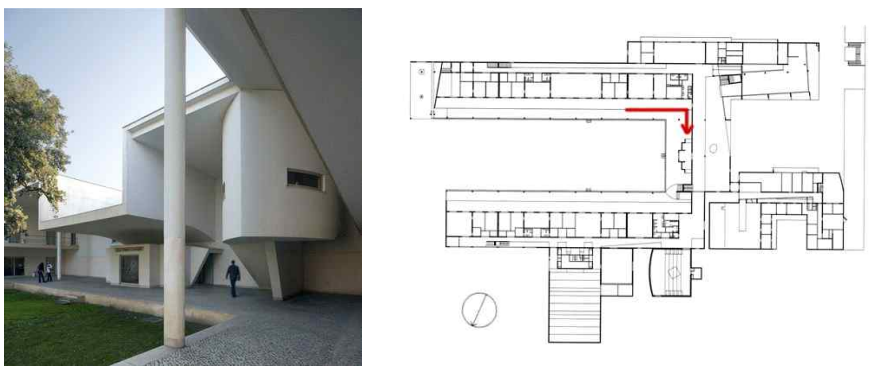


그림 4-11 입구의 조형성과 숨어있는 입구의 위치

라 안쪽 갤러리이자 아뜨리움에서 중정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창이다. 입구는 그 옆의 삼각형 형태로 튀어나온 모서리 사이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중정과 자연과 로지아의 끝에 위치한 파사드는 의도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면에서 입구를 강조하여 사람을 곧바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입구를 모서리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한 번 더 입구를 찾아 들어가게 한다. 방문자는 입구로 들어가기까지 움직이면서 공간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건물에 대한 건축적 체험을 조금 더 연장하게 된다.

(2)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 (Serralves Contemporary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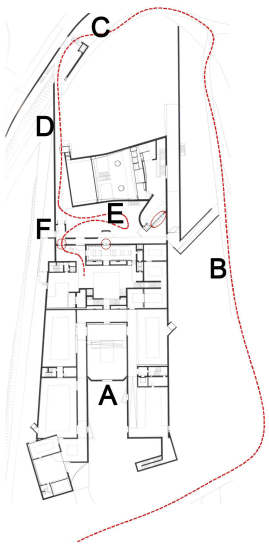


그림 4-12 세라벨스 미술관의 입구와 동선(3F)

세랄베스 미술관은 남쪽의 중정을 만드는 대칭적인 매스 사이에 정면성이 강한 파사드(A)가 있지만 이곳에는 입구가 없다.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의 흰 매스의 측면(B)을 돌아가면 북쪽에서 입구의 캐노피(C)를 발견할 수 있다. 흰 벽을 따라 긴 통로(D)를 지나면서 왼쪽으로는 자연을, 정면에서는 빛과 벽이 만나 생기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명료한 그림자를 만난다. 통로를 지나 왼쪽으로 마당이 나타나는데, 곡면, 직선, 사다리꼴 형태의 벽들과 하늘이 만나는 중정 공간(E)에서 사람들은 잠시 머물게 된다. 마당 가운데 서있는 나무 한그루와 함께 둥근 강당 볼륨의 지붕에 있는 테라스 카페테리아의 사람들의 행위를 지각할 수 있다.

미술관의 입구는 중정공간에서 시선을 잡는 사다리꼴의 캐노피가 아니다. 이 캐노피에도 입구가 있지만 이것은 선물가게의 입구로서 미술관 관람 후 출구로 사용될 수 있다. 선물가게 입구를 지나면 매스들의 틈새공간에 하나의 입구가 더 있는데, 이것은 강당의 입구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입구들을 통해 미술관의 개장시간 이외에도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미술관의 입구는 지나왔던 통로의 진행 방향의 정면에 직사각형 캐노피 아래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입구를 쉽게 발견하고 내부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벽과 벽이 만나는 틈새에 입구를 두고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만듦으로써 미술관의 풍요로운 외부 공간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

106) Madalena Cunha Matos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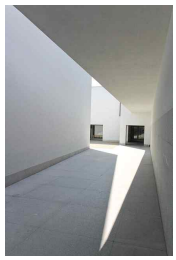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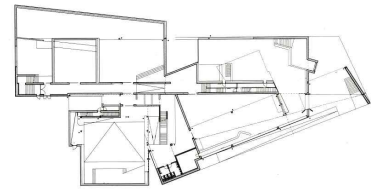


그림 4-13 A, B, C, D, E 공간

4.1.3. 다양한 층위의 벽

(1) 갈리시안 현대미술관 (Galician Contemporary Arts Museum)



위 치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년 도	1988-1993
프로그램	이 미술관은 Santo Domingo de Bonaval수도회 소유의 대지안에 있다.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인 건물인 Santo Domingo 교회와 근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대지에 현대미술관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시자의 해석이 드러난,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뜨리움 홀, 까페테리아, 서점, 세미나 룸, 전시실, 강당, 야외 전시 및 도시의 조망이 가능한 옥상 등이 있다.

표 4-6 갈리시안 미술관의 개요

갈리시안 현대 미술관의 내부는 벽이 서로 만나고 교차하거나 또는 평행한 통로를 만듦으로 해서 다양한 공간의 켜를 만든다. 이러한 공간의 켜는 각각 다양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그림에서 A부터 G까지는 입구(A)에서 전시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지각 할 수 있는 공간의 켜를 표시한 것이다. 색이 짙어질수록 더 깊은 단계의 공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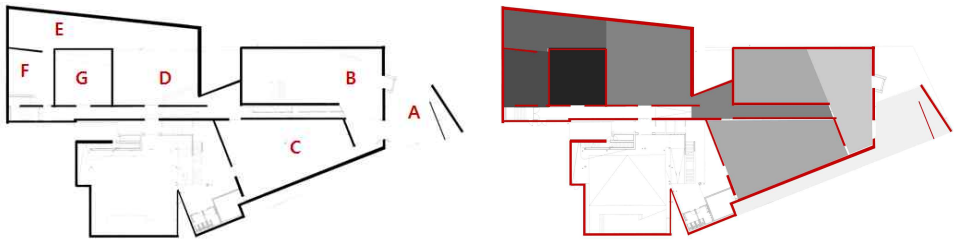


그림 4-14 갈리시안 미술관, 공간의 깊이

입구에서 들어오면 홀로 들어가기 전 우측으로 까페테리아, 서점 등의 휴식 공간(B)을 보게 되는데 그 곳으로 들어갈지 정면의 더 깊은 곳에 있는 홀(C)로 들어갈지 선택하게 된다.

밝고 다이나믹한 홀의 공간을 지나 1층 전시실(D)로 향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의 계단을 통해 2층 전시실로 갈 수 있다. 1층 전시실 공간 역시 벽을 따라 전개되며 더 깊은 공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켜는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관람자가 공간으로 들어갈수록 반전을 거듭하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벽을 통해 생성되는 공간의 연속은 다음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도록 함으로써 관람자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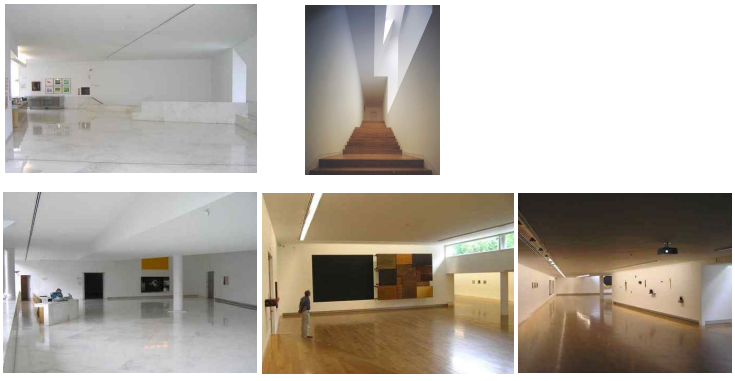


그림 4-15 A-E 공간의 시퀀스

(2)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 (Serralves Contemporary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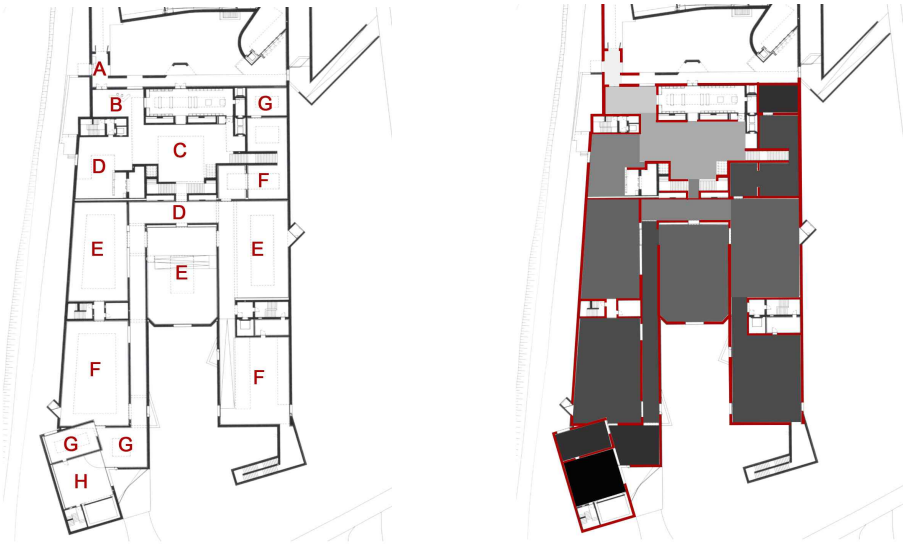


그림 4-16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의 공간의 깊이

세라발스 현대 미술관의 분절된 매스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내부 공간은 직교하는 벽의 켜들에 의해 공간의 깊이가 만들어진다. 미술관의 홀은 이러한 직교하는 공간들의 깊이가 시작되는 지점이자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직교하는 벽들은 적당히 열려 공간의 출입구를 만들며, 여러 방향으로 열린 공간들을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시 공간 안으로 또 다른 전시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관람하는 순서에 따라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공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라발스 미술관은 선형적인 시퀀스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평 수직적인 축에 맞게 미로처럼 열려있는 출입구들을 선택하여 전시공간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관람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4-17 세라발스 현대 미술관,
다방향으로 열려있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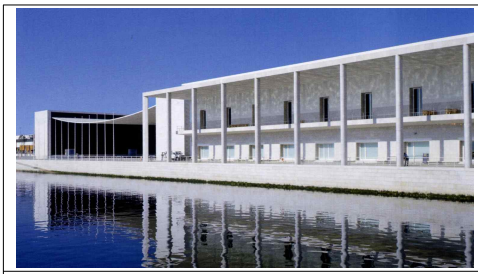
각 전시관들은 서로 다른 높이와 크기를 갖고 천장, 창, 램프 등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18 다양한 전시 공간

4.2.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2.1. 비워진 공간

(1)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 (Portuguese pavilion, Expo '98)



위 치	Lisbon, Portugal
년 도	1995-1997
프로그램	

국가를 대표하는 엑스포의 파빌리온으로 돛단배와 축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계획 시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어 엑스포가 끝난 이후의 가변적인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지붕으로 덮인 영역: 3,900㎡, 나머지 건물영역: 14,000㎡. 전시: 2,600㎡, 초청객 접대 및 레스토랑: 11,200㎡, 지하 서비스 영역: 4,500㎡

표 4-7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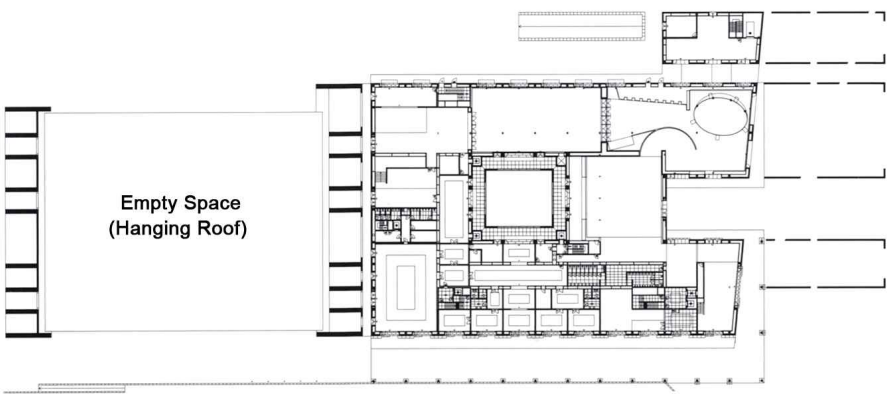


그림 4-19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F1 평면, 비워진 공간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은 계획 시 지붕이 덮인 광장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요구가 있어 그에 대한 반영으로 바닥 면적이 65×58미터이고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텅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 나머지 건물의 부분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정해진 모듈로 반복적인 질서를 가진 공간이다.

볼트와 같이 볼록한 지붕이 아닌 20센티미터 두께의 얇은 보강 콘크리트 판이

그림 4-20 비워진 공간

강철 케이블에 의해 매달려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넓은 빈 공간은 밖에서 보기에는 주변으로 열려있는 것 같지만 지붕의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면 주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듯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된다. 지붕의 현수 시각적으로는 넓은 수평선과 하늘이 프레임을 통해 멀리 보인다. 이러한 비워진 공간은 자연과 맞닿아 있지만 바깥 환경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외부의 빛과 바람, 날씨 등의 변화를 관조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4-21 지붕 아래 공간에서 보이는 수평선

또한 이곳은 전시관으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저 빈 채로 남아있기도 한다. 지붕 아래의 비워진 기념비적 공간은 불확정적인 해석과 행위의 장소로서 사람들마다 다른 개인적인 체험이 유발되는 곳이다.

(2) 세투발 교육대학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세투발 교육대학의 중정은 자연과 건물이 하나가 되도록 하며 주변의 자연을 건물 속으로 흡입하는 힘이 있다. 중정 안쪽 끝에 서있는 나무는 새로 심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에서 보존된 것으로, 기존의 자연과 자연의 보호에 대한 각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세투발 대학의 매스의 배치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넓은 중정에 홀로 서있는 나무는 익숙한 오브제이면서도 주변의 건물과 대비되는 낯선 느낌을 갖게 한다.[107]

중정의 빈 공간은 침묵의 공간이자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태양의 각에 따라 기둥과 나무의 그림자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런 명상과 사색이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가 자리한다.

또한 중정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 포

107) 'Madalena Cunha Matos, Analysis of a Project, The Setubal College of Education', Luiz Trigueiros, 「Alvaro Siza 1986-1995」, Barcelona : Editorial Gustavo Gili, 1995

그림 4-22 중정의 보존된 나무

디움에 의해 내부 공간과 중정의 자연은 연속성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맺는 상호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간이다. 사람들은 중정에서 내부공간으로 스며들듯이(permeable) 들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입구들이 있다. 이는 공간의 깊이가 얕은 구조로서 건물과 자연과 사람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한 자리를 지켰는지 알 수 없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시간의 축적을 수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여지를 남기는 시자의 건축적 노력을 나타낸다.

내부 공간에서도 이러한 비워진 중정 공간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까페테리아의 큰 창을 통해 보이는 작은 중정은 포장된 바닥 위의 나무들과 하늘, 그리고 주변의 농지들을 바라보면서 사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자는 이러한 자연과 어우러진 비워진 공간을 통해 건축에 완전함을 두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완성되어갈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이용자의 행위나 사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4-23 까페테리아의 창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좌)과 교실 앞 포티코를 통한 자연과의 상호관입

(3)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Ibere Camargo Museum)

위 치	Porto Alegre, Brazil
년 도	1998-2008
프로그램	지하 1층- 주차장, 예술가의 작업실, 창고, 도서관, 강당, 사무실 1층- 까페, 서점, 홀 2-4층- 전시 공간

표 4-8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의 개요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은 남쪽이 절벽에 면해있고, 이 가파른 절벽의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시자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기존의 절벽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절벽과의 거리를 두고 지어졌다. 이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전시공간의 경사로의 각이 나오지 않게 되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 이 건물에서 가장 큰 특징인 외부로 나와 있는 경사로이다. 건물을 안고 있는 듯이 매스 밖으로 나와 있는 램프의 매스는 건물의 입구 앞에 안마당과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들고 있다. 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이 공간은 램프의 매스가 떠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어떤 행위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경사로 매스와 빛이 만나 건물 벽에 그리는 그림자, 그리고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 보았을 때 하늘을 조각하는 듯한 매스의 사이 공간은 사람의 감흥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조각처럼 서로 만나고 얽히는 경사로 매스와 건물 매스 사이의 틈새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형태를 재조합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아무 목적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풍부한 공간감으로 내부의 전시 공간 못지않게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잠재성이 있다.

그림 4-24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입구 앞의 마당

4.2.2.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1) 세투발 교육대학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세투발 교육대학은 틈새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태양의 고도의 변화와 빛의 세기, 빛과 만나는 질감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다. 기하학적 매스들이 중첩된 틈 사이로 들어오는 포르투갈의 강한 빛은, 흰 매스와 만나 강한 음영의 대비를 만들어 낸다. 또한 흰 매스와 대비되는 푸른 하늘의 모습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갤러리이자 모든 시설들을 연결하고 있는 중앙의 아뜨리움에서는 약간 일그러진 원형의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다.

그림 4-25 (좌측부터) 매스 틈새의 하늘과 빛, 아뜨리움의 천장, 계단실의 창, 체육관의 천창 빛

작은 원형의 틈을 통해 하늘의 모습의 변화, 태양고도에 따른 음영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촉각을 자극하는 따뜻함 등을 느끼게 한다. 중정 쪽으로 튀어나온 둥근 매스의 계단실은 얇은 틈과 같은 창을 통해 어두웠을 수도 있는 계단에 은은한 빛을 비춰주고, 체육관 천장의 긴 슬릿을 통한 빛은 체육관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밝혀주는 빛은 공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간감을 체험하도록 해준다.

(2) 레비그레스 전시홀(Revigres Exhibition Hall, 1993-1997)

위 치	Vale do Grou, Agueda, Portugal
년 도	1993-1997
프로그램	타일 코팅 회사 건물의 증축 프로젝트로서 기존의 행정동 건물 앞에 놓여져 있어 새로운 건물을 통해 기존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1층은 필로티로 띄어지고 2층은 전시공간이다.

표 4-9 레비그레스 전시홀의 개요

교통량이 많은 메인도로변에 위치하여 도로변을 따라 축을 가지는 건물은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되었다. 현관이 있는 필로티로 띄어진 부분은 다소 어두운 공간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시홀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다.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계단과 계단상부의 공간에서 내려오는 빛줄기, 계단 위 정면에 서있는 원기둥이 사람들을 위층으로 끌어들인다. 계단으로 올라갈수록 어두웠던 전이공간은 밝은 빛이 떨어지는 메인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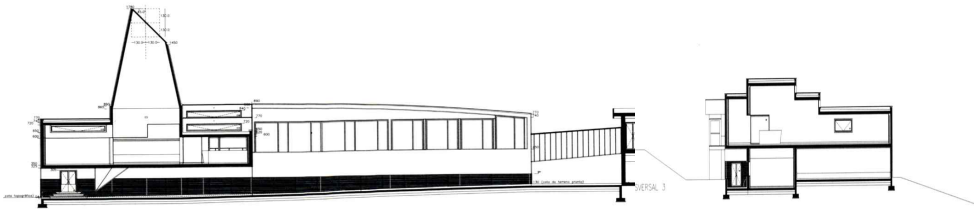


그림 4-26 종단면- 빛 대포 (좌), 횡단면-계단식 지붕 (우)

원뿔 형태의 지붕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빛 대포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천장에서 들어오는 직사각형의 빛이 산란되는 공간이다. 계단 형태와 원뿔 형태의 천장은 더욱 역동적인 공간감을 준다. 빛이 떨어져서 생기는 빛 그림자는 물성과 만나면서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준다. 빛의 산란과 조형적 공간감에 대한 감동을 극대화 하는 것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수직적 이동을 통해 밝고 역동적인 공간으로의 반전이다.

이러한 빛의 산란이 일어나는 전시공간은 공간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적인 전시물이 되며 사람들의 심리적 감흥을 유발한다.

그림 4-27 레비그레스 전시홀의 공간감의 반전을 주는 빛

4.3.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간 체험 유발

4.3.1.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1)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 (Serralves Contemporary Art Museum)

많은 미술관들이 작품을 담고 배경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는 것과는 달리 세랄베스 미술관은 전시물들과 자연과 사람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변의 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술관의 각 전시실마다 다양한 크기의 창들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창들은 각 전시실에 다양한 특색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창들은 한 점의 그림처럼 프레임 안에 자연을 담기도 하고 모서리의 두 면에 걸쳐 테라스와 바깥의 자연을 향해 열려 있기도 하며, 중정을 향해 전면으로 열려 시각적으로 외부의 자연과 동화될 수 있기도 하다.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작품의 감상과 더불어 자연과의 연속적 관계를 갖는 공간의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감흥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림 4-28 세랄베스 뮤지엄의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2) 이베레 카마르고 뮤지엄 (Ibere Camargo Museum)

그림 4-29 입면에서 보면 창의 크기가 매우 작다.

대지의 남쪽은 절벽과 맞닿아 있고 북쪽은 Padre Cacique 해안도로와 면해 있어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베레 카마르고 재단 미술관은 건물의 크기에 비해 입면에 창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외부에서는 창의 크기가 매우 작아 내부가 외부와 단절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창의 크기가 외부의 자연을 조망하고 자연 채광을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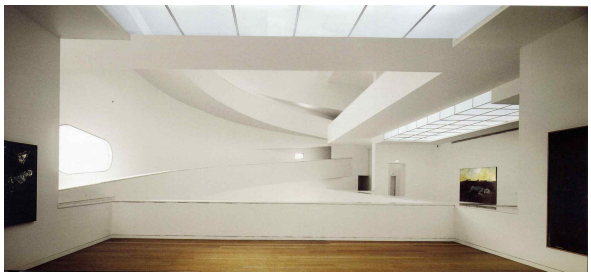


그림 4-30 밝고 역동적인 내부 공간

인다. 내부는 창을 통한 빛과 적당량의 인공조명으로 밝은 분위기이며 벽을 따라 흐르는 램프의 선들은 역동적인 느낌을 만들어낸다.

램프는 내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따라 반 층을 올라가고,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캔틸레버로 떠 있는 램프로 반 층을 올라가게 되어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램프를 따라 아뜨리움과 전시 공간, 그리고 길과 같은 램프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야의 닫힘과 열림을 번갈아 경험하게 되고 층간 이동과 함께 전체적인 미술관의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이 때 램프를 따라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창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창*으로서 과하게 열려있지 않으면서도 가끔씩 만나게 되는 풍경으로 더욱 큰 감흥을 받게 된다. 바깥 램프의 닫힌 공간에서의 창은 시선을 외부 풍경으로 집중 할 수 있게 하며 바다와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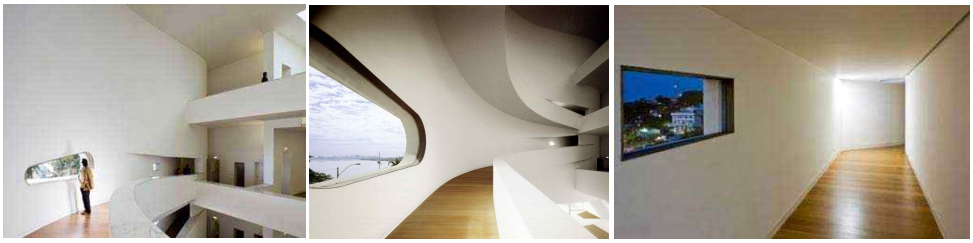


그림 4-31 내부에서 본 창과 자연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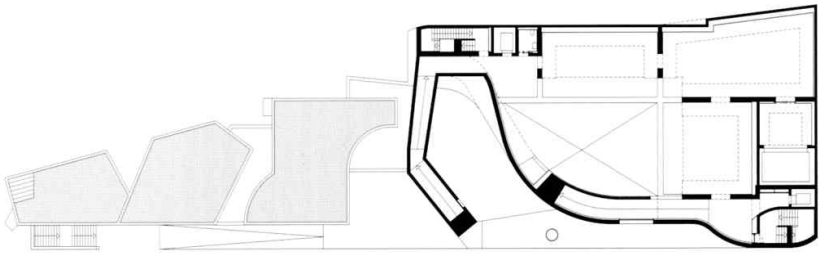


그림 4-32 F2 평면

'L'자 형태의 전시 공간에는 남쪽의 절벽을 향해 열려 있는 창이 있다. 벽에 걸린 그림과 같이 열려있는 이 창은 프레임을 통해 절벽의 자연을 담아 내부 공간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 이 창을 통해 보이는 절벽의 보존된 자연은 이 미술관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화두와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시자의 창은 내부의 밝고 역동적인 공간의 체험과 대한 집중을 방해하

지 않으면서도 외부 자연과의 적절한 소통을 만들고 있다. 또한 건물 전체적으로 몇 개 되지 않고 적은 비율의 창들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와 소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33 전시공간의 창

4.3.2. 조화 또는 반전을 통한 도시 조직과의 관계

(1) 갈리시안 현대 미술관 (Galician Contemporary Arts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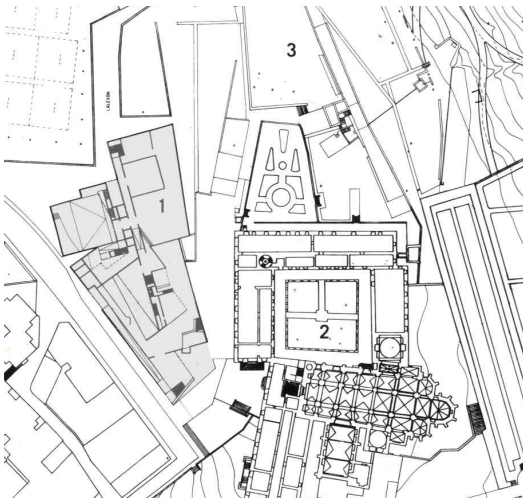


그림 4-34 갈리시안 미술관의 주변 도시
2- 산토 도밍고 수도원

산티아고 데 캄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는 중세의 건물과 성벽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de Bonaval) 수도원과 접해있는 대지에 들어서는 갈리시안 현대 미술관은 이 오래된 도시의 건물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였다.

매스는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높이가 맞는 두 개의 'ㄴ'자 형태의 볼륨이 만나 삼각형 형태를 만들고 있다. 하나는 Valle-Inclan거리에 평행하게 놓여있고 다른 하나는 Bonaval 묘지에 평행하게 자리함으로써 맞닿아 있는 도시 조직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또한 외장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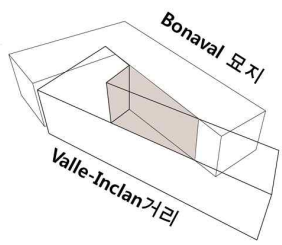


그림 4-35 산토 도밍고 수도원과의 관계 (좌)와 매스의 구성 (우)

재료로 화강석을 사용하여 주변의 역사적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창이 거의 없는 석재의 벽은 육중한 매스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내부의 홀 공간은 Valle-Inclan거리에 평행한 벽을 따라 길게 열린 창을 통해 도시의 건물들과 마주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에서도 이 역사적인 도시와 자신과의 관계를 느낄 수 있으며, 도시를 향해 열린 밝은 내부 공간은 도시의 광장의 연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갈리시안 미술관은 단순히 현대 미술관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공건물들과 함께 작용하여 오래된 도시에 활기를 주는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그림 4-36 도시와 조화로운 외부 모습과 반전된 내부 공간

(2)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 (Faculty of Architecture Oporto University)

그림 4-37 도시의 스케일과 자연과의 조화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는 남쪽으로 Douro 강을 굽어보고 있는 삼각형 대지에 지형적 흐름을 따라 분절된 매스들로 이루어져있다. 이 볼륨들은 캠퍼스의 공간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남쪽의 강을 향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배치되어있다. 분절된 매스들 사이의 조경과 빈 공간들은 주변의 자연과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며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

다양한 높낮이를 갖는 분절된 매스들과 그 배치는 주변 도시의 다양한 스케일의 건물들의 형태를 수용하면서도 시자만의 독특한 감각이 드러나는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지에 대해 시자가 그린 다이어그램은 대지의 동쪽에 위치하는 카를로스 라모스 파빌리온(Carlos Ramos Pavilion)[108]과 이전에 재건된 역사적 영지인 Quinta da póvoa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매스를 배치했음을 보여준다.

108) 2.1절에서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4-38 포르토대학 배치 다이어그램

시자는 단순한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기 보다는 도시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자의 건축은 독립적인 건축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자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관계와 함께 전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한다.

4.3.3. 형태와 내부 공간의 반전

(1) 카나베제스 교회 (Canavezes Church)

그림 4-39 견고한 형태의 외관

카나베제스 교회는 외관으로는 단순한 기하학의 상자와 같다. 거대한 매스의 파사드에 창이 많지 않아, 견고하고 묵직한 느낌을 준다. 흰 색 매스의 교회 하단부는 계단과 벽이 석재로 되어 있어 재료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전체적인 외관을 바라보며 교회의 내부로 들어가면, 무거운 매스감의 외관과는 달리 의외의 밝고 시원한 분위기를 만나게 된다. 좌측의 천장 모서리에서 들어오는 큰 빛 덩어리와 우측의 낮은 수평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리고 재단의 벽 뒤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은은한 두 줄기의 빛이 흰 색의 내벽을 만나 더욱 밝은 내부를 만들고 있다.

그림 4-40 밝은 내부 공간

외관에서 보인 직선과 곡선의 기하학적 매스가 내부에서는 역으로 작용하여 독특한 조형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재단을 바라보았을 때 우측의 낮은 수평창은, 사람들이 앉았을 때 지평선과 마을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회의 견고한 형태와는 달리 내부의 밝은 분위기와 앉는다는 일상적 행동을 통해 만나는 의외의 시각적 자극은 공간감의 반전을 통해 사람들의 감흥을 유발한다.

(2) 미메시스 뮤지엄 (Mimesis Museum)

	위 치	Paju Book City, Korea
	년 도	2006-2009
	프로그램	시자가 평소에 즐겨 그리던 고양이의 스케치에서부터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지하- 문서보관실, 서비스 공간, 전시 공간, 1층-홀, 임시 전시, 카페/레스토랑, Mezzanine- 행정 사무실, 직원 휴게실, 문서의 보관실 직원 화장실, 2층- 전시 공간

표 4-10 미메시스 뮤지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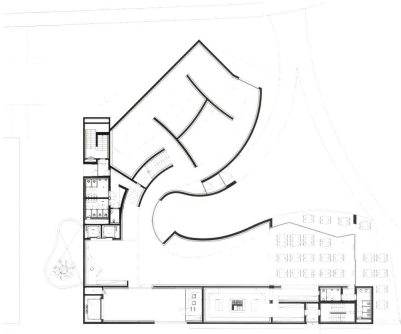


그림 4-41 F1 평면

미메시스 뮤지엄은 도로에서 진입할 때 보이는 직선의 면과 그 안쪽으로 유기적인 흐름을 타고 중정이 형성되는 형태이다. 백색 콘크리트의 견고하고 무거운 매스는 폐쇄적으로 보인다. 1층에 부분적으로 필로티가 있고 그 안쪽으로 유리면이 있지만 외부에서는 육중한 매스에 압도되어 조그만 틈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내부로 들어가면 흰색의 천장과 벽으로 이루어진 밝은 공간이 나타난다. 필로티 안쪽으로 보이던 유리벽은 카페 공간의 창인데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기에는 시원하게 열린 전면창이다. 2층의 전시 공간은 거대한 사선이 지나다니는 천장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사선으로 찢어진 형태의 조형적인 구조물과 천장 면 사이에 조명 빛이 흘러나와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준다.

그림 4-42 밝고 역동적인 내부 공간

견고하고 단순한 매스의 외관과는 달리 내부의 다이나믹한 공간감은 관람자의 흥미와 감각을 자극한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기하학적 형태는 사람의 연상

작용 등에 따라 다르게 재조합되어 보일 가능성이 있다.

4.4. 소결: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특징

제 4장에서는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의 구현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4-11>과 같다.

표에서 '○'로 표시된 것은 구현 방식에서 사례로 들었던 작품이고 '△'로 표시된 것은 구현방식과 일대일 대응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구현 방식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공간의 연속적 관계 체험		
	매스의 분절	모호한 입구	다양한 층위의 벽	비워진 공간	빛에 의한 공간의 변화	창을 통한 자연의 유입	조화 또는 반전을 통한 도시 조직과의 관계	형태와 내부 공간의 반전
Setubal Teachers Training College	○	○		○	○	△		
Oporto Architecture School	○			△	△		○	
Galician Contemporary Arts Museum		△	○				○	△
Canavezes Church	○			△	△	△		○
Serralves Contemporary Arts Museum	○	○	○			○		
Ibere Camargo Museum				○	△	○		△
Portugese Pavilion, Expo' 98				○		△		
Revigres Exhibition Hall					○			
Mimesis Museum				△	△			○

표 4-11 작품 분석 결과 정리

첫째, 공간적 체험을 유발하는 구현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한 가지 의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현방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복합적인 공간적 체험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자의 건축은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구현방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층위의 체험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어떠한 구현방식들이 시자의 모든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자의 건축이 미리 정해둔 언어가 없고 프로젝트마다 대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특성과 맞물리는 것이다.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의 분석 과정을 단어와 문장과 글과의 관계로 비유하여 나타내어 본다면 <표 4-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자와 비평가들의 건축공간에서의 체험에 관한 언술들을 정리하여 도출한 단어들을 통해 분석틀을 이끌어낸 것이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한 전체적인 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움직임을 통한 공간 체험의 유발은 사람들이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사람들마다 다른 프로세스로 건축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한 공간 체험의 유발은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공간 구현방식이며 이는 개인적인 체험 이후에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과 관계될 수 있다.
또한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한 공간 체험의 유발은 독립적인 건축 공간의 체험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과 도시와의 관계를 함께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아가 도시와 자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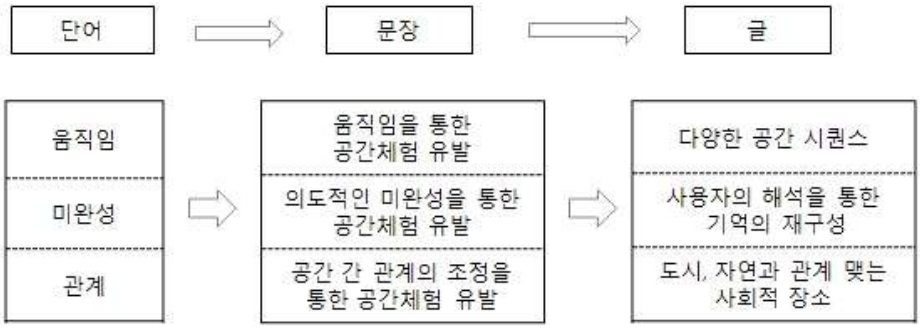


표 4-12 작품 분석의 발전 과정

제 5 장 알바로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구현공간 구성방식의 특징

5.1. 시퀀스의 조정을 통한 공간의 체험 유발

5.2.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체험의 통합

5.3. 연속적 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장소의 구현

5.4. 소결: 사회적 장소로의 변화의 여지

5.1. 시퀀스의 조정을 통한 공간의 체험 유발

5.1.1. 다양한 시퀀스의 가능성

시자의 건축 공간은 근대 건축에서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선형적인 시퀀스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경로와 동선이 있어 방문자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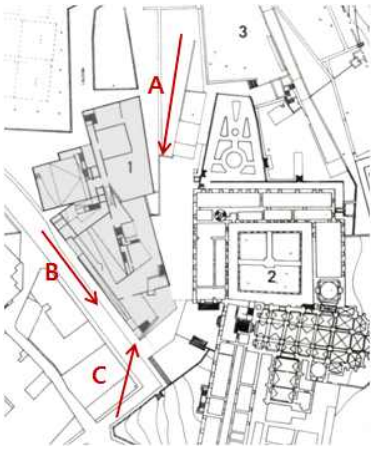


그림 5-1 갈리시안 미술관으로 접근하는 세 가지 시퀀스

역사적인 도시에 삽입되어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갈리시안 현대 미술관은 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가진다.

먼저, 미술관의 옆에 나란히 있는 산토 도밍고 수도원(2, Santo Domingo Convent)의 위쪽 공원을 통하는 길(A)이다. 이 공원 역시 시자가 디자인한 것으로, 미술관과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잇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도원의 과수원이었던 대지(3)를 공원화함으로써 후면의 높은 도로에서 지형의 경사로를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오면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거닐며 자연과 오래된 수도원의 시간성을 느끼고, 현대미술관과 수도원의 조화로운 대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 정원을 통해 역사적인 도시과 새로운 현대미술관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도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 또한 미술관에 이르는 건축적 산책의 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림 5-2 시퀀스 A 공원에서 내려오는 길

시퀀스B는 Valle-Inclan 거리에 평행하게 놓여있는 램프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거리에 면하고 있는 미술관의 파사드를 파고 들어간 램프는 미술관으로 거리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램프를 올라가면서 보이는 정면의 석재와 철제 프레임의 조화, 그리고 철제 프레임이 들어 올리고 있는 석재의 무게감, 그 프레임을 통해 보이는 오래된 도시의 풍경은 사람들마다 다른 감흥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그림 5-3 시퀀스 B Valle-Inclan 거리의 램프

시퀀스 C는 산토 도밍고 교회의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경사진 지형을 따라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오래된 도시의 역사적인 건물을 마주보며 새로운 미술관의 벽 사이공간으로 올라가면 계단의 오른쪽은 철제 프레임이 석재 벽을 들어 올려서 생긴 가로로 긴 틈이 있다. 사람들은 미술관 입구로 올라가면서 프레임과 같은 이 틈으로 오래된 도시의 풍경을 보게 된다.

그림 5-4 시퀀스 C

미술관을 방문 하는 사람은 진입하는 방향에 따라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공원을 산책해보고, 램프를 통해 걸어보고, 입구의 좁은 틈을 통해 올라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공간적 시퀀스를 모두 체험한 후 도시와 갈리시안 미술관이 맺고 있는 공간적 연속성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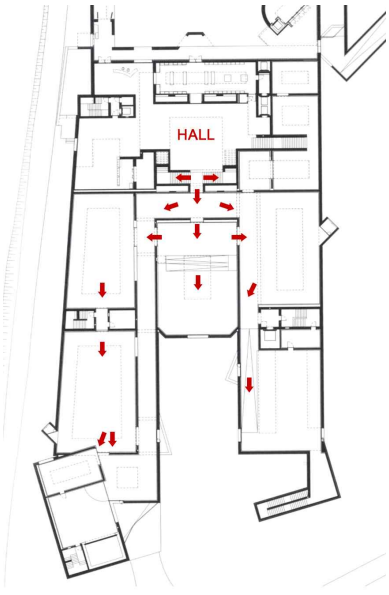


그림 5-5 세랄베스 뮤지엄의 전시공간 시퀀스

세랄베스 미술관의 전시 공간의 시퀀스에서도 다양한 시퀀스로 인한 선택적인 관람이 요구될 수 있다. 홀 공간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공간이 모이고 공간의 체험이 시작되는 곳으로 개인마다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 방향으로 열려있는 전시 공간의 연결은 선형적인 시퀀스가 아니라 다방향으로 시퀀스가 전개되도록 하며,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도서관, 휴게실 등의 공간들을 함께 생각한다면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109]

109) 이러한 전시 공간의 시퀀스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전시 방법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전시물과 전시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으나 건축 공간의 체험에

5.1.2.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

시자의 건축 공간은 근대 건축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을 규정해 놓은 선형적인 시퀀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부분적인 공간적 시퀀스를 경험하고 그 합을 통해 전체적인 공간의 체험을 통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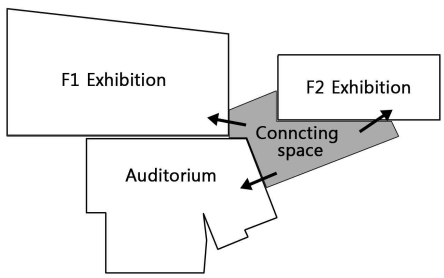


그림 5-6 갈리시안 미술관의 분절된 공간

갈리시안 미술관의 내부 공간 시퀀스를 보면 중앙의 삼각형 아뜨리움과 그 옆에 길게 붙은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합쳐서 연결공간으로 보았을 때, 이 연결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 공간과 강당 등과 같은 분절된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절된 공간들은 각각 독립된 공간들로 그 안에서 독립적인 시퀀스들을 갖는다. 독립된 공간들은 그것만으로도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자의 공간적 특성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르토 대학 건축학부의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분절된 공간들과 그 안에서의 독립적인 시퀀스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형의 갤러리 공간에 의해 분절된 매스의 공간들이 연결되는 지하레벨과 캠퍼스의 비워진 공간을 통해 분절된 매스들로 진입할 수 있는 지상 레벨 모두 중심의 연결 공간을 통해 분절된 매스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같다. 교실, 도서관, 갤러리 등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갖는 각각의 매스들은 그 내부에서 독립적인 시퀀스를 갖고 있으며 각각 특색 있는 공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부분적인 시퀀스로 경험하고 난 후 전체적인 건축의 공간체험으로 통합하게 된다.

그림 5-7 포르토 건축대학, 분절된 매스들마다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간과 시퀀스를 갖는다. 이렇게 분절된 시퀀스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결국 하나의 통합적인 시퀀스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시자의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와 공간 구성 방식은 루이스 칸

있어서의 시퀀스에 대해 논한 것이다.

(Louis Kahn)의 건축 공간 구성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칸의 건축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단위 공간(Room)들이 모여 전체의 공간을 구성한다. 단위공간들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며 이들을 연결하는 연결 공간 또한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완결체이다.[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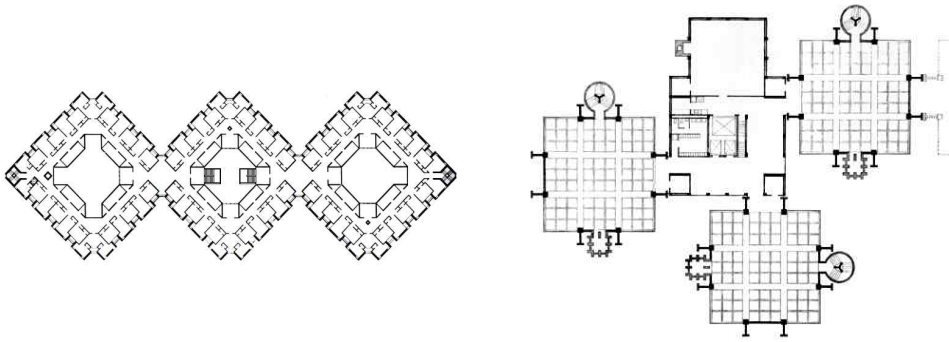


그림 5-8 브린모어 기숙사(Bryn Mawr Dormitory, 좌) 와
리차드 메디컬 센터(Richard Medical Center, 우)

독립적인 공간이 연결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방식과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를 갖는 점이 유사해 보이면서도 칸의 건축 구성방식과 시자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큰 차이를 갖는다. 칸의 기하학적인 단위 공간을 통한 구성방식과는 달리 시자의 건축은 평면의 기하학적 질서의 구성을 통해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자는 현장의 상황과 건설 기술에 맞게 현장에서 디자인을 조정하며 기하학을 디자인과 완성된 건물 사이를 잇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한다.[111] 따라서 기하학적 질서의 구성을 통한 건축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시자의 건축 공간과 형태는 주변의 상황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은 이러한 주변과의 관계를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

110) 김광선, 루이스 칸의 건축공간구성에서의 연결공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8

111) William J. R. Curtis, 'A Conversation with Álvaro Siza', *ibid.*

5.2.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체험의 통합

사람의 기억에 대한 원리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사람은 경험한 사건의 전체를 연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불연속적 장면들을 재구성하여 저장한다. 무엇인가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매개로 기억하거나, 인식의 크기나 잔존하는 과거의 경험과의 연상 작용 등에 따라 재구성 방법이 다르다. 개인 마다 공간을 재구성 하는 방법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경험 후에 불연속적인 기억들을 재조합함으로써 통합적인 체험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112]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잔존하는 기억의 크기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 체험과 기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공통 요소의 반복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5.2.1. 다양한 시점에서 같은 공간의 반복적 체험

시자는 다양한 공간의 장면을 연속적으로 체험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반복적인 공간의 체험을 통해 통합적인 공간적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면서 하나의 공간을 다른 위치에서 여러 번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전체적인 체험 후에 이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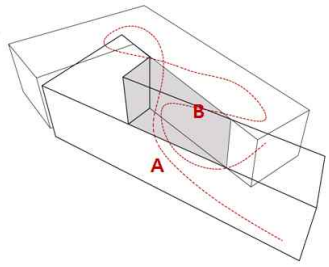


그림 5-9 아뜨리움의 반복적 경험

갈리시안 미술관의 홀은 두 개의 'ㄱ'자 형태의 매스가 만나면서 그 가운데 생기는 삼각형 형태 공간이다. 홀 공간은 입구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밝아지는 내부의 광장과 같은 장소이다. 삼각형의 아뜨리움 벽이 1층의 천장 지붕과 만나면서 생기는 모서리 선은 투시도적 장면으로 봤을 때 마치 기울어진 천장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소점의 끝에 있는 기둥이 마치 기울어진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A)

홀에서 전시 공간으로 갈 때 다시 뒤를 돌아보면 삼각형 아뜨리움의 뾰족한 조형적 공간과, 벽 너머 사이 공간 그리고 기울어진 창의 형태가 함께 조각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된다. 벽 너머 고창을 통해 내려오는 빛이 공간의 음영을 더욱 명확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 벽 너머 사이 공간에는 2층 전시 공

112) 권영걸, *ibid.* p.41

그림 5-10 홀- 입구 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반대방향에서 본 모습

간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 홀 공간을 지나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2층에서 내려올 때 이 계단으로 내려오게 된다. 홀에서 전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봤던 장면이 계단실에서 뚫려있는 벽 너머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있다.(B)

그림 5-11 들어갈 때와 내려올 때 보는 홀

같은 공간을 아래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봄으로써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며 지나왔던 공간을 다시 만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의 인식을 명확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위치에서의 반복적 경험은 다양한 공간들을 둘러보고 난 후 불연속적인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게 해준다.

세랄베스 미술관에서도 이러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미술관의 입구가 있는 중정 공간 안쪽에 있는 둥근 매스의 지붕은 테라스 까페인데 중정에서 올려다보면 사람들의 행위가 보인다. 이러한 시선의 교차는 나중에 가게 될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만든다. 전시 공간의 관람이 끝나고 2층의 테라스에 가면 이전에 지나왔던 미술관의 외부 공원과 중정 공간들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의 체험으로 인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외부 공간은 다른 위치에서 봄으로써 또 다른 감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나온 공간들을 다시 바라보며 공간의 체험에 대한 기억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체험을 통한 인식의 깊이는 개인적인 감각을 가지고 체험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장면이 되도록 한다.

그림 5-12 세랄베스 미술관의 중정에서 올려다본 테라스 까페와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중정

5.2.2. 공통요소를 통한 반복적 인식

세랄베스 미술관에서는 천창의 그리드나 천장에 매달린 조형물, 창을 통해 끌어들인 자연과 같은 반복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공간의 체험을 통합하고 있다. 매스의 분절과 다양한 층위의 벽을 통한 깊이 있는 공간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건물 전체를 모두 체험해보아야 그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 각각의 공간은 다양한 모습을 갖지만 공간 전체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의 건축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공간 속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삽입하여 결국 하나로 읽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림 5-13 창을 통한 자연과의 반복적 만남

그러나 공통요소를 삽입함에 있어서 모두 똑같은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공간의 다른 요소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른 크기와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그 반복이 지루하지 않다.

각 전시실과 휴게실, 도서실 등의 공간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창들이 자연을 담은 그림처럼 걸려있다. 또한 전시실마다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시자 특유의 책상을 뒤집은 듯한 산광 장치의 형태와 격자 그리드의 천창은, 다양한 전시실의 모습을 공통적인 이미지로 묶어준다.

그림 5-14 천창과 천장 구조물의 반복

이러한 반복적인 이미지의 경험은 전체적인 체험을 묶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세랄베스 미술관의 공간적 체험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5.3. 연속적 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장소의 구현

5.3.1. 빛과 창을 통한 도시와의 연속적 관계

시자의 건축에서 빛은 공간의 명암과 물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사람들의 시적 감흥을 유발한다. 빛은 시자의 건축 외에도 공간의 체험으로 많이 언급되는 안도 다다오나 스티븐 홀의 건축 등과 같이 많은 건축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자 풍요로운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Church of Light)나 스티븐 홀의 크랜브룩 과학 전시관(Cranbrook Science Museum)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 빛은 이러한 공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로서의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5-15 교회의 고창을 통한 빛

카나베제스 교회에서 나타나는 빛은 사람들의 공감각을 자극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자 자신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였기에 그에 반하는 밝은 교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였다.[113]

이 교회에서 빛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간을 하나의 공공의 장소로 만드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인 것이다. 도구로서의 빛은 시자의 의도에 맞도록 실험되고 조정되었다. 실제로 시자는 자신이 만들어 내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스케치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큰 모형으로 빛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림 5-16 수평창

시자는 이러한 밝은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 고창을 통한 빛만 있었다면 여전히 어두운 감옥과 같은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114] 교회 공간에 새로운 문화

113) *ibid.*
114) *ibid.*

가 자리 잡도록 하려는 의도는 고창 반대편에 난 긴 수평 창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마을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열린 창은 이 공간을 집회를 위한 폐쇄적인 종교적 공간이 아닌, 도시와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과 교회와의 연속적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종교적 행위에 대한 능동적 사색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유발할 수 있다. 공간에서 빛 자체의 감각적 효과에 대한 감흥도 분명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자가 직접 디자인한, 고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자의 배치와 디자인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 교회에 나타난 빛과 창은 교회의 공간을 밝고 활기찬 사회적인 장소로서 구현하려는데 의미가 있는 요소이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사용자들의 몫이며, 그에 대한 변화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 또한 시자 건축의 특징이다.

5.3.2. 공간의 관입을 통한 자연과의 연속적 관계

시자는 '복원(Restore, Revive)'이라는 말 보다는 '회복(Recovery)'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시자가 생각하는 복원의 의미는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말로, 건축적인 문제 이상의 문화적 차원이나 시간적 차원이 포함된 것이다.[115] 건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새로운 재료로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원래 재료가 가졌던 시간성과 역사를 가질 수 없다.

자연과 사람이 맺는 관계에 대한 시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오랜 시간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변화해온 시간성을 지닌 존재이고, 이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시자는 이러한 자연과 건축과의 연속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을 만든다. 자연의 소리, 빛, 촉감 등이 사람들에게 주는 공감각적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가진 본성에 대한 시자의 생각은 역사적인 것과 관계가 된다.

세투발 교육대학의 중정 가운데 서있는 오래된 코르크나무는 이러한 생각으로 보존되었고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 자연의 보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킨 자연은 새로운 건물과 사람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시간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

115) *ibid.*

그림 5-17 세투발 교육대학의 중정과 포티코

중정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교실동은 고전적인 건축적 언어인 포티코(Portico, 열주랑)를 통해 반외부적 영역을 갖는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하면서도 자연을 향해 시원하게 열린 중간 영역을 매개로 교실공간과 자연이 상호 관입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건물의 침투가 일어나는 이 공감각적 공간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자연과 건축 공간의 관입을 통한 연속적 관계는 98엑스포 포르투갈 파빌리온과 알리칸테 대학 사제관(Rectorate of the University of Alicate, Spain, 1995-1998)에서도 나타난다.

포르투갈 파빌리온의 포티코는 강과 면해 있는 대지에서 건물과 강과의 밀접한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강의 부두의 경계에서부터 수직으로 세운 포티코는 강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건물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깊이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티코 안쪽의 발코니에서 강과 하늘의 변화 그리고 태양의 고도와 시간에 따른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외부적 공간은 자연과 사람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그림 5-18 파빌리온과 자연과의 공간적 관입

알리칸테 대학 사제관은 캠퍼스에서 가장 제도적인 성격의 건물로서 외부적으로는 엄격하게 통제된 듯이 보이는 기하학적 경계를 갖지만 내부적으로는 열린 중정을 가짐으로써 하늘과 자연 그리고 건축 공간과의 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정 공간을 향해 열린 포티코와 베란다는 강한 햇빛과 여름의 고온과 같은 지역의 기후에 대한 반영으로, 그늘의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다. 공간을 거닐면

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늘과 멀리 있는 산을 향하게 하는 수평적인 볼륨과 빈 공간은 신체의 감각을 자극하면서도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만들기도 한다.

그림 5-19 알리칸테 대학 사제관의 견고한 외부(좌)와 열린 중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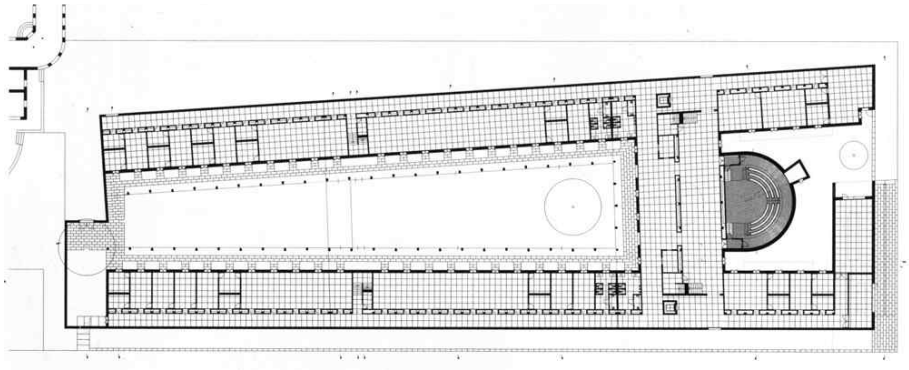


그림 5-20 1층 도면

5.4. 소결: 사회적 장소로의 변화의 여지

제 5장에서는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구현공간의 구성방식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제 4장에서 분석한 구현방식의 확장된 의미로서 전체적인 건축구성방식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첫째, 움직임의 유발은 공간체험에서 시퀀스 개념과 관계될 수 있다. 시자의 건축에서 시퀀스의 조정을 통한 공간에서의 체험을 유발하는 방식은 다양한 시퀀스의 가능성을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한 한 가지 시퀀스는 전체적인 공간 체험에 있어 부분적인 시퀀스로서 이러한 부분적인 시퀀스들을 경험하고 난 후 이들의 합으로서 전체적인 체험이 통합될 수 있다. 부분의 합으로서의 시퀀스는 전이 공간을 통해 독립적인 공간들이 연결되는 공간 구성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사람들은 공간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전체적인 공간의 체험 후 기억을 재구성하여 체험을 통합한다. 사람들은 불연속적인 특정 장면들로 기억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시자의 건축에서는 반복적인 장면의 인식을 통해 그것을 매개로 기억하고 통합하게 될 수 있다. 한 공간을 시간차를 두고 다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식의 크기를 확장하고, 반복적으로 인식되는 공통요소는 기억의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공통요소는 시자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복사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다양한 디자인으로 사용된다.

셋째, 공간 간의 연속적 관계의 조정을 통해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를 함께 체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고 소통하게 된다. 이는 공감각적 자극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빛과 도시와의 소통을 열어주는 창을 통해 구현되며, 자연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을 통해 상호 관입함으로써 그 연속적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자의 건축구현공간의 구성방식은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재구성하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다. 사람들의 행위와 경험을 건축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자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사회적 장소로서 자리하게 한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지역성과 보편성을 결합함으로써 현대 건축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갖는 알바로 시자의 건축을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공간으로 바라보고 그 구현방식과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시자는 자신의 건축에 대해 명확히 언어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자의 건축 공간에서 체험의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정리하였다. 그 결과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체험, 사용자에 의한 공간의 해석 그리고 공간의 연속적 관계의 체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체험을 유발하기 위한 구현방식은 첫째, 움직임의 유발을 통해, 둘째, 의도적인 미완성을 통해, 셋째, 공간 간 관계의 조정을 통해 나타난다.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 공간 구현방식은 한 가지 방식이 한 가지 의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현방식들과 상호작용하여 사람들이 공간을 복합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시자의 건축이 대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을 갖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

또한 시자의 건축구현공간의 구성은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시퀀스의 조정과 반복적 체험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 도시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간의 관계를 열어줌으로써 구현된다.

이와 같이 시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를 열어줌으로써 시자의 건축은 사람과 자연과 도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자의 건축은 화려한 외형이나 구축방법론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건축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건축 공간에서 감흥을 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자의 건축을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체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도 시자의 건축 공간 구현방식과 함께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체험적 입장에서 분석하면서도 기존의 연구들이 추상적으로 설명해왔던 사회적 의미와 만나게 됨으로써 단순히 감각적이고 현상적인 체험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

다고 본다.

한계점으로는 분석틀의 시작점인 시자의 공간적 체험의 개념이 시자와 비평가들의 언술을 통해 도출한 것이어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건축 공간에서의 체험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과제로서 이러한 공간의 체험에 관한 분석틀의 설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시자의 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문화, 전통과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Siza 관련

・Giovanni Leoni, 'Construction, Experience, Languages.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Álvaro Siza」, Motta Architettura, 2009

・Preface by Álvaro Siza, text by Marc Dubois, Photos by Giovanni Chiaramonte,「Álvaro Siza: Inside the City」,Whitney Library of Design, 1998

・Text by Kenneth Frampton, Nuno Portas, Alexander Alves Costa, Pierluigi Nicolin,「Álvaro Siza: Poetic Profession」, Electa/Rizzoli New York, 1986

・Alvaro Siza, Kenneth Frampton,, 「Álvaro Siza: Complete Works」, Phaidon, 2000

・Brigitte Fleck, 「Álvaro Siza」, New York: E&FN SPON

・Marc Dubois, 'Álvaro Siza Vieira',「Álvaro Siza: Inside the City」,Whitney Library of Design, 1998

・Peter Testa, 「Álvaro Siza」,Basel ; Boston : Birkhauser Verlag, 1996

・Álvaro Siza,「Álvaro Siza : アルヴァロ·シザの建築」, TOTO出版, 2007

・라파엘 모네오,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8인의 현대 건축가」, 임기택 옮김, 공간사, 2008

・Philip Jodidio, 「Álvaro Siza」, Köln : Taschen, 1999

editor, José Paulo dos Santos ; introductions, Peter Testa & Kenneth Frampton 「Álvaro Siza : works & projects 1954-1992」, Barcelona : Editorial Gustavo Gili, 1993

・Brigitte Fleck, Álvaro Siza, Wilfried Wang, 「Álvaro Siza : city sketches = stadtskizzen = desenhos urbanos」,Basel : Birkhäuser, 1994

・Luiz Trigueiros, 「Álvaro Siza 1986-1995」, Barcelona : Editorial Gustavo Gili, 1995

・Hal Foster,「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Seattle: Bay Press, 1983

- 기타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spacetime, 2001

・반 데 벤 (Van de Ven, Space in Architecture)(1976), 『건축공간론』, 정진

원 ; 고성룡 공역, 기문당, 1987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제, 2001
루돌프 힐덴브란트 (Das Problem der Form in der bildenden Kunst)(1893), 조창섭 역, 『조형미술의 형식』, 민음사, 1989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정기간행물

・Robert A. Levit, 'Language, Sites and Types: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Alvaro Siza', The Journal of Architecture Colume 1, Issue 3, 1996
・「Álvaro Siza 1995 1999」, Madrid : El Croquis, 1999
・「Álvaro Siza 68/69, 1994」, Madrid : El Croquis
・「Álvaro Siza 2001 2008」, Madrid: El Croquis
・「Álvaro Siza: 1954-1988」, Japan : A+U, June 1989 (extra edition)
・ 'Nuno Grande, Portugal: News from the Far-West', Japan :A+U; Apr. 2007, Vol. 439
・'Jorge Figueira, The Perfect Periphery', Japan :A+U; Apr. 2007, Vol. 439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er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The MIT Press, Vol.20 (1983)
・Nelson Mota, Between populism and dogma Álvaro Siza's third way, Footprint: Delft School of Design journal, Mar. 2011

논문

- 학위논문

・최현철, 기억의 재구성에 의한 건축 공간 인식의 불연속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임현성, 건축적 공간체험을 통한 장소성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2006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2
・정수영, 전시공간에서의 Scene의 구조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3
・이지영, 공간경험의 다차원성에 따른 인간의 감정반응 유형과 공간디자인 표

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5
・Peter A. Testa, The Architecture of Álvaro Siza, MIT, 1984

- 학회논문

・변대중, 이영수, 현대 건축의 시간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고성룡, 안우진, 장소성을 체험하는 현대박물관의 공간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5.10
・박희령, 김억, 감각적 공간 체험에 따른 촉각적 공간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06
・홍덕기, 구영민,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 05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황미영, 임채진, 전시 공간 디자인의 시지각적 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12
・전인목, 안도 다다오의 명화의 정원을 통한 체험적 공간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08
・정진원, 소병일, 안도 타다오 건축의 현상학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0.10
・김준, 유재우, 근대 이후 시각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투명성 개념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Abstract

A study on Álvaro Siza's strategy of realizing architectural space inducing spatial experiences

- focusing on the public buildings since 1985 -

Lee, Won Hee

Department of Architecture

Master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Choi, Du Nam

The purpose of study on Álvaro Siza is to analyze his architecture that is not only designed with regional culture and tradition embraced, but also universal Modernism combined with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spatial experiences.

Unlikely the abov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rchitectural design method that Siza uses are analyzed, signified or formalized using the abstract and conceptual words which bring the idea of tradition and culture embraced, reflection of life, poetic forms and inspiring architecture.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analyzing his architecture from an experiential aspect and reveal his architectural strategy for realizing spatial experiences.

It is, first, necessary to organize what the concept of spatial experiences is in Siza's architecture for he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his language of architecture is.

Drawn a conclusion from critics and Siza himself, the concept of spatial experiences in his architecture is 1, spatial experiences through circulating 2, interpretation on space by the users and 3, spatial experiences of continuous relationship. Through this conclusion, his architecture is redefined as *architecture which induces spatial experiences*, and three strategies for

realizing such experiences are arranged.

First, the methods which induce spatial experiences through circulating are segmentation of masses, vague entrance and various layered walls making spatial depth.

Second, leaving choices for the users to interpret, it is purposely designed to be unfinished and changing spatially by empty space and light.

Third, adjusting a relationship between spaces, it induces spatial experiences in sequence that makes a reversal of form and internal spaces, penetration of nature through the windows, harmonious or reversal relationship with urban fabrics.

These strategies of inducing spatial experiences do not imply only one meaning but interrelate with other strategies, so people can experience space complexly. He also uses various methods in one project that is related for him to seek the different ways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the condition and situation of site.

As mentioned, Siza's articulation of spaces does not clearly define spatial characteristics but leaves chances for the users to experience and articulate spaces by themselves.

First, designing various spatial sequences, the users can choose to circulate from one space to another and it may differ due to different users circulating spaces in a different sequential order.

Second, it reconstructs memories through repetitive spatial experiences. Each person can experience same space and have different memory through using the transformation of common elements and experiencing repetitively as different views.

Third, space is defined as to be a social place by communicating with city through light, windows, and continual relation with nature through intercourse of space.

Siza's architecture, likewise, means more than phenomenal and sensible spaces to feel and experience. Not only has it encouraged communication between city and nature, but also leaved chances for the users to interpret space as a social place.

It may be the limit of this study that the framework for analysis may not

be objective. That's because there are only theoretical and conceptual approach on spatial experiences in previous studies not on the substantive frameworks. In this aspect, it can be expected for the next study on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e spatial experiences. And it may have a meaning if a relation between culture, tradition and experience, which is mentioned frequently as a character of Siza's but this study does not contain, is analyzed using actual ways.

Keywords : Alvaro Siza, Experience, movement, spatial relationship, Spatial Sequence
Student Number : 2010-23172